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吟 昊

# 九龍齋 白鳳來의 『論語』 圖說 研究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東 아 시 아 學 科

李 芽 迎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昤 昊

九龍齋 白鳳來의 『論語』 圖說 研究

A Study on Guryongjae Baek Bong-rea's Doseols of  
the *Confucius*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9 年 10 月 日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東 아 시 아 學 科

李 芽 迎

이 論文을 李芽迎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19 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

審査委員

---

審査委員

---

#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유형과 특징 .....	6
1. 전도 유형 .....	7
2. 분절도 유형 .....	14
3. 장별 요지파악 유형 .....	17
4. 핵심주제어별 요지파악형 .....	22
제3장 백봉래 『논어』 도설의 유형과 특징 .....	30
1. 전체요지 파악 도설 .....	32
2. 논리구조 파악 도설 .....	35
3. 편·장별 분석 도설 .....	39
4. 핵심어 ‘一貫’ 분석 도설 .....	48
제4장 백봉래 『논어』 해석의 특징 .....	53
1. 以經證經·以經通經 .....	53
2. ‘吾道一以貫之’의 차서 .....	58
3. 논맹본말론 .....	64
제5장 결론 .....	69

## 표목차

표 1-1 장현광의 「論語上·下圖」 항목별 분류 .....	11
표 1-2 「論語上圖」 ‘仁’ 관련 조목 정리 .....	12
표 1-3 조식의 「博文約禮圖」와 박세채의 「顔子傳授爲仁圖」 .....	25
표 2-1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의 대지과약 및 정의 .....	42
표 3-1 백봉래의 『四書通理-論語』 요지과약 .....	60

## 그림목차

그림 1-1 최상룡의 「第三論語圖」	8
그림 1-2 장현광의 「論語上·下圖」 일부	10
그림 1-3 김항의 「第六論語圖」	15
그림 1-4 김휴의 「吾道一貫章圖」	18
그림 1-5 김휴의 「朝聞道夕死可圖」	20
그림 1-6 박세채의 「顔子傳授爲仁圖」	23
그림 1-7 정복심의 「顔子克己工夫」	27
그림 1-8 조식의 「博文約禮圖」	27
그림 2-1 백봉래의 「論語爲學根本之圖」	33
그림 2-2 백봉래의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	36
그림 2-3 백봉래의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	40
그림 2-4 백봉래의 「歎不復夢見周公之圖」	44
그림 2-5 백봉래의 「夫子一貫之圖」	49

## 논문 요약

# 九龍齋 白鳳來의 『論語』圖說 研究

이 논문은 九龍齋 白鳳來(1717~1799)의 『논어』 도설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백봉래는 18세기 在野의 경학가로서 師承관계와 學脈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관점으로 聖賢이 남긴 微言大義를 밝히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경학가들은 경전을 圖解하는 형식을 취하여 각 경전이 가진 전체적인 요지와 논리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각 편·장의 내용을 圖式化하여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핵심주제어에 관련된 개념을 하나의 도표에 배치하여 개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백봉래의 『論語通理』는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식면에서는 語錄體 형식을 가진 『논어』를 도설이라는 저술 방법을 통해 일관된 논리와 체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는 논어 圖解를 통해 전체 요지파악과 논리구조파악 각 篇·章별 요지파악과 핵심주제별 요지를 파악하여 논어를 다방면으로 분석하였다.

내용면에서는 朱子學說을 근간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간 것이 특징이다. 논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以經證經·以經通經의 방식을 통해 여러 경전의 구절과 관련지어 『논어』 해석의 깊이를 더하였으며, 『논어』 전체가 ‘吾道一以貫之’로 관철되어 있음을 14개의 논어 도설로 드러냈다. 또 『논어』와 『맹자』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本末 관계를 형성한다는 견해를 펴 『논어』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도설을 통해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은 동아시아에서 흔치 않은 사례로 조선시대 경학의 주요한 특징이다. 조선의 경학가들은 논어의 산발적인 어록체 형식에도 불

구하고 논어를 도해하였다. 특히 백봉래는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14개의 도설을 저술하였다. 그의 저술은 독학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당대의 학자들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경전의 도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가의 경전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 한 시도로써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九龍齋 白鳳來 , 論語圖 , 『論語通理』 , 論語圖說 , 體用論



# 제1장 서론

圖說은 조선시대 경서해석에 있어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 중 하나로, 경서의 요지를 도표화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여말선초 陽村 權近(1352~1409)의 『入學圖說』을 시작으로 20세기 초까지 여러 학자들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다양한 도설을 생산해냈다. 특히 16세기 四書三經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리학의 발달로 인해, 경서와 성리서의 요지를 도표화 하는 작업이 退溪 李滉과 南冥 曹植 등 대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sup>1)</sup>

특히 조선의 학자들은 주자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四書연구에 많은 공력을 들였다. 그 중에서 四書を 도표화한 사례를 살펴보면, 四書 가운데에서도 『大學』과 『中庸』에 그 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현상의 까닭으로는 첫째, 조선 학자들이 주자학의 근원을 『대학』과 『중용』에 두었기 때문이며, 둘째, 형이상학적 개념어가 많은 성리학의 특성과 성리학의 수용에 있어서 단계적인 수용이 아닌 通時的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성리학의 주요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셋째, 『대학』·『중용』은 모두 『예기』에 속해있던 것을 주자가 章句로 독립시키면서 그 편차를 개정하고 논리에 맞도록 구성하였다.<sup>4)</sup> 이에 저작 자체가 논리적 구조를 가지게 되어 도식화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도표의 특징인 요지와 논리구조의 유기적

1) 최석기(2005), 「『한국경학자료집성』의 특징과 그 연구방향」, 『한국경학자료집성』소개 『대학』해석의 특징과 그 연구 방향, 『대동문화연구』 vol.49, 대동문화연구원, pp.49-50.

2)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자료를 기준으로 四書五經 관련 도설은 『大學』 85개, 『論語』 15개, 『孟子』 21개, 『中庸』 73개, 『詩經』 38개, 『書經』 374개, 『周易』 1919개, 『禮記』 18개, 『春秋』 0개로 추정됨.

3) 서경요(2001), 「『천명도설』의 성리학적 고찰」, 『조선조 성리철학의 구조적 탐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17.

4) 최석기(2018),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양상과 특징 -圖說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Vol.60, 경남문화연구원, p.360.

과악에 적합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論語』와 『孟子』는 타인과 문답하거나 공·맹의 언행을 기록한 語錄體 형식을 띠며 장별로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서 전체를 아우르는 요지와 논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논어』의 경우, 한 시대에 한 사람에 의해 서술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구조를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기적 관련성과 일관된 요지파악에 용이한 도표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지점이 『논어』·『맹자』 관련 도설이 활발히 제작되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 『논어』·『맹자』 관련 도설이 전혀 제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논어』의 경우 四書체제 이전부터 『孝經』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朱子學 체제의 四書學이 들어오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논어』에 관한 저술은 130여 종에 가까우며 저술을 남긴 학자들 역시 100여 명을 상회한다.<sup>5)</sup>

따라서 『논어』 해석방법과 요지파악 역시 학자별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논어』관련 내용을 도식화하는 도설 역시 경전해석방법에 포함된다. 현재 필자가 파악한 『논어』 관련 도설은 25개 정도로<sup>6)</sup> 적지 않은 수가 발견된다. 하지만 『논어』 도설의 관한 연구는 다른 논문에 일부 소략한 내용으로 실려 있을 뿐,<sup>7)</sup> 『대학』·『중용』도설 연구에 비해 『논어』 도설의 형식적·내용적 탐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sup>8)</sup>

---

5) 이영호(2019), 『동아시아의 논어학』, 『대동문화연구총서』 Vol.29,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p.225-236.  
6)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논어』 도설에는 백봉래의 도설이 14개, 장현광 2개, 최상룡 1개, 김황 1개 김휴 6개, 박세채 1개 등이 있다.  
7) 『논어』 도설을 언급한 논문으로는 윤기륜(2017), 「崔象龍의 『論語辨疑』 譯註」,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창호(2008), 「九龍齋 白鳳來의 『四書通理』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이 논문들은 일부 개괄적인 내용만 파악하였을 뿐 『논어』 도설을 경전해석의 흐름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8) 대표적인 四書圖說 관련 연구자로는 최석기를 꼽을 수 있다. 최석기는 저서로 『조선시대 대학도설』과 『조선시대 중용도설』을 펴내면서 58명의 대학도 151개를 일일이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였고,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유의미한 해석을 한 학자들의 『대학』·『중용』도설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대학』

한편 조선시대 『논어』 도설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九龍齋 白鳳來(1717~1799) 학문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병찬, 문창호, 조현석 3명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sup>9)</sup> 먼저 이병찬은 두 편의 학술논문을 통해 백봉래를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詩經』과 『書經』의 편집비평적 성격을 주제로, 그의 『시경』과 『서경』의 체제가 『주역』의 차서 체제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개별 경전의 의미가 아닌 三經의 공통적인 특성과 일관성을 추구하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백봉래 경학은 새로운 고증을 배제하고 大全本 三經을 중심으로만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설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sup>10)</sup>

백봉래의 『四書通理』 전체를 다룬 문창호의 학위논문에서 문창호는 『四書通理』 전체를 다루어 『論語』·『孟子』·『大學』·『中庸』과 관련된 도설을 뽑아 그 특징을 살펴 보았으며, 백봉래의 학문의 경학론적 의의를 밝혔다. 또 후속 연구로 『大學』과 『中庸』을 河圖와 洛書와 비견하여 그 體用 관계를 밝혔으며, 『주역』의 卦를 이용해 『大學』과 『中庸』을 풀이한 사례를 소개하여 그의 경학론과 경서 해석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sup>11)</sup>

가장 최근 연구로 백봉래 『三經通義』의 『書經』관련 도설을 분석한 조현석의 학위논문에서는 백봉래 「三經通義-書經」소제 「虞書」 6圖를 天文·道統·配應이라는 3가

---

도설에 대하여 그 분절설과 조선시대 전반의 그는 도를 그리는 것은 정밀한 해석을 추구한 결과이며, 조선시대 학자들은 도표를 그려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한다. 또, 경전해석방법으로 圖를 제작하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선 경학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석기·강현진(2012a),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사 참조.

- 9) 이외에 백봉래를 가장 먼저 대중에게 소개된 것으로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의 『한국경학자료집성』을 들 수 있으며, 백봉래의 학문과 저술에 대하여 최석기(1998), 『한국경학가사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 10) 이병찬(2005), 「白鳳來 詩經論의 編輯批評의 性格 研究」, 『어문연구』 Vol.48, 어문연구학회, pp.195-217; 이병찬(2008), 「백봉래의 서경론 연구 - 편집비평적 성격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Vol.56, 어문학회, pp.169-190 참조.
- 11) 문창호(2008), 위의 논문; 문창호(2017), 「구룡재 백봉래의 經學 一考 - 『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 『유학연구』 Vol.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pp.69-99 참조.

지 관점으로 정밀 분석하여 백봉래의 도설의 일정한 틀을 밝혀내고, 「우서」를 도식 화함에 있어서 체계성·간편성·명증성을 도출해냈다. 또 그는 백봉래의 경전해석 방식을 ‘도설경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도설이 경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방식임을 드러냈다.<sup>12)</sup>

이 일련의 연구들은 백봉래의 대체적인 경학론을 소개하였으며, 각 경전에 대한 개별 도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만 四書三經 관련 도설 가운데, 『주역』·『논어』·『맹자』 관련 도설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뿐더러 이미 다루어진 도설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개괄적이거나 일부분만 다룬 지점이 있다. 때문에 각 경전에 해당하는 여러 도설을 개별적인 도설로 인식한 것에 그쳐 전체 도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첫째, 『논어』의 다양한 해석방법 중 하나로서 『논어』 관련 도설을 분석하여 『논어』 해석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논어』 도설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백봉래의 『논어』 도설을 중심으로 그의 『논어』 해석의 특징과 도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논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 제2장에서는 필자가 확인한 『논어』 도설을 바탕으로 ①전도 유형 ②분절도 유형 ③편·장별 요지파악 유형 ④핵심주제어별 요지파악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른 경전의 도설과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소략하게나마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논어』 해석방식으로서 도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백봉래의 『四書通理-論語』(이하 『論語通理』로 지칭하겠다.) 도설 14개 가운데 특징적인 도설을 뽑아 각 내용에 따라 ①전체 요지파악 도설 ②논리구조 파악 도설 ③편·장별 분석 도설 ④핵심어 ‘一貫’분석 도설로 분류하고 앞서 논의한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유형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봉래 도설

12) 조현석(2016), 「九龍齋 白鳳來의 『書經』 「虞書」 六圖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그의 경전해석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바를 참고하여 백봉래 『논어』 해석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그가 『논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以經證經’과 ‘以經通經’ 방식을 취하여 설명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백봉래 14개의 도설이 가진 차서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가 도설을 저술함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지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절에서는 『논어』와 『맹자』가 서로 本末과 體用 관계를 이룬다는 그의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고, 어떠한 측면에서 『맹자』와 연관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개를 통해 백봉래 『논어』 해석의 방법과 목적, 『맹자』로의 확장성을 다루어 백봉래 『논어』 해석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백봉래의 『논어』 해석의 특징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및 남은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장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유형과 특징

『논어』는 중국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성립된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이미 삼국시대에 전래되었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러 널리 보급되었다. 특히 주자학을 건국이념으로 한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의 핵심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유가의 기본 경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 명 성조 영락 13년(1415)에 편찬된 『四書集註大全』이 세종 원년(1419)에 수입되어 이듬해부터 간행되어 전국에 보급되기에 이르러,<sup>13)</sup> 『논어』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논어』와 관련된 경전해석방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었다. 『논어』를 국어로 이해하려고 한 시도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口訣·釋義 등의 단계를 거쳐 완역본이라 할 수 있는 諺解를 간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sup>14)</sup> 또 『논어』를 주해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釋義·質疑·辨疑·筭錄·答問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up>15)</sup> 『논어』해석방법으로 도표를 통해 경서의 뜻을 소통·증명하기 위해 경전의 복잡한 사상과 개념들을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알기 쉽게 도식화한 경향도 나타났다.<sup>16)</sup>

이에 본장에서는 『논어』 해석방법으로서 『논어』 도설의 유형을 그 형식적·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①전도유형 ②분절도 유형 ③편·장별 요지과약 유형 ④핵심주제어별 요지과약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7)</sup>

13) 안현주 (2002),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論語』의 板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Vol.24, 한국서지학회, p.311; 이영호(2019), 앞의 책, pp.230~232 참조.

14) 이영호(2019), 앞의 책 pp.230~235.

15) 송갑준(2008) 「한국논어연구사시론 — 16~17세기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vol.43, 대동철학회 참조.

16) 서경요(2001), 위의 논문, pp.16~17. 서경요는 유가 경전을 經義를 파악하기 위해 독서를 하다가 의심이 나는 부분을 그때마다 筭錄해 두고, 나중에 다른 책을 참고하거나 사색을 통하여 해답을 찾는 과정을 거쳐 이를 그림으로 배열하고 설명을 덧붙여 考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도설이라고 설명한다.

## 1. 전도 유형

鳳村 崔象龍(1789-1849)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학자로 한 당파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학파의 주요학자들의 설을 인용하여 同異와 是非를 논변함으로써 경서를 해석하고자 하였다.<sup>18)</sup> 그는 ‘四書가 四經에 근본한다’는 관점 아래에 『中庸』-『周易』, 『大學』-『書經』, 『論語』-『禮記』, 『孟子』-『詩經』으로 연관 짓고 「經書八圖」를 그려 각 경서를 하나의 요지로 파악하여 도표화하였다.<sup>19)</sup> 「경서팔도」는 『鳳村集』 6권에 각 사서별 서문과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논어』에 관한 도표는 세 번째로 실려 있다.

---

17) 이와 같은 분류에 대해서는 최석기(2018),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양상과 특징 -圖說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Vol.60, 경남문화연구원; 김유곤(2007), 「한국 ‘中庸圖說’의 주제와 특성」, 『유교사상문화연구』 Vol.29, 한국유교학회 참조.

18) 이혜인(2014), 「鳳村 崔象龍의 『孟子』 해석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19) 四經과 四書を 서로 연관시켜 『中庸』의 明道는 『周易』의 精微에 근거하고, 『大學』의 入德은 『書經』의 王道에 근본하고 『論語』의 仁은 『禮記』의 禮에 나타나고, 『孟子』의 反經關邪·遏慾存理는 『詩經』의 性情善惡·感發懲創에서 비롯한다고 밝혀 四書가 四經에 근본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四經四書論에 대하여 최석기(2007), 「鳳村 崔象龍의 學問性向과 經學論」, 『한문학보』 Vol.17, 우리한문학회, p.6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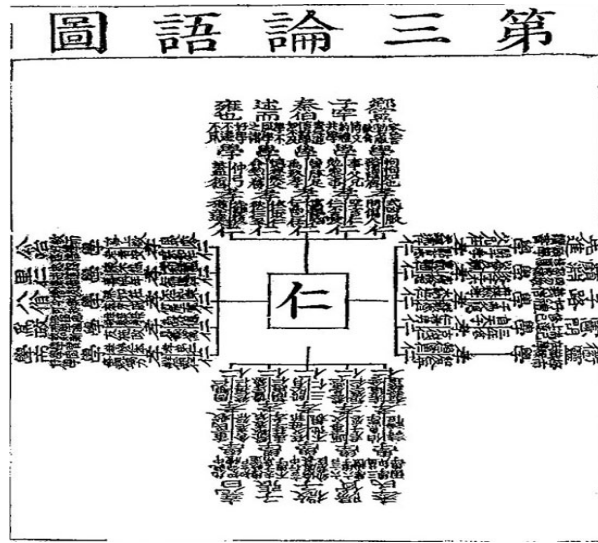


그림 1-1 최상룡의 「第三論語圖」

최상룡의 「第三論語圖」(이하 「論語圖」로 지칭하겠다.)는 『논어』 전체의 요지를 ‘仁’으로 파악하여 중심에 두고, 『논어』 20편을 각각 5편씩 사방에 배치하였다. 또 그는 각 편을 ‘學’·‘孝’·‘仁’으로 나누어 각 편에 수록된 내용을 적어놓았다. 예컨대 「學而」의 내용을 살펴보면, 學 위에 ‘學習’·‘學固’·‘好學’을 두었고, 孝 위에는 ‘孝悌仁本’·‘事親竭力’을 두고, 仁에는 ‘孝弟仁’·‘鮮仁’·‘親仁’을 두었다. 이와 같이 도표화 한 의도를 아래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논어』 중에서 그 大旨를 들어보면, 하나의 ‘仁’자를 끄집어내지 않을 수 없으니, 『논어』 20편 중에 한 편도 ‘仁’을 말하지 않은 편이 없고, 어떤 일도 ‘仁’을 말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리고 「학이」는 ‘學’ 한 글자로 단서를 열고, ‘孝悌’가 ‘仁’을 행하는 근본임을 이어서 말하였으니, 생각건대 기록한 자의 뜻이 ‘學’이 『논어』의 본령이 되고, ‘仁’이 이 학문의 전체가 되며, ‘孝’가 또 ‘仁’을 행하는 근본임을 밝힌 듯하다. …… 이에 감히 仁을 가운데에 두어 『논어』의 大旨로 삼고 仁을 행하는 것은 孝에 근본하게 하고, 孝를 극진히 하고 仁을 체득하는 것은 또 學의 근본으로 하였



다. 그러므로 20편 가운데 學·孝·仁을 종류별로 모아 전체의 仁에 귀속시켰으니, 이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학이」에서 처음으로 ‘學’을 말하고, 그 다음 ‘孝’를 말하고 그 다음 ‘仁’을 말하는 뜻이다.<sup>20)</sup>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학이」 1장<sup>21)</sup>에서 ‘學’이 제일 먼저 나오고, 2장<sup>22)</sup>은 ‘孝弟’를 말했는데, ‘孝弟’가 ‘仁’을 행하는 근본이 됨을 말하면서 ‘學’을 『논어』의 본령으로, ‘仁’을 유학 전체를 아우르는 요지로, ‘孝’를 ‘仁’을 행하는 근본이 됨을 밝힌 것이다.<sup>23)</sup>

최상룡의 「논어도」는 단 한 장의 도설로 『논어』 20편의 요지를 파악했다는 것의 의의가 있다. 그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논어』를 구절 단위로 끊어 ‘學’·‘孝’·‘仁’ 3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하여 배치하였다. 또 기준이 되는 ‘學’·‘孝’·‘仁’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논어』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해 및 분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또 『논어』 관련 도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논어도는 16세기 후반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旅軒 張顯光(1544-1637)의 「論語上·下圖」이다.<sup>25)</sup> 이 도표는 장현광의

20) 崔象龍, 『鳳村集』 卷6, 雜著, 「經書八圖」 第三論語圖, “就一部之中而舉其大旨, 則不得不拈出一仁字, 二十篇中, 無一篇不言仁, 無一事不言仁. 且首篇開端一學字, 繼言孝悌爲仁之本, 竊恐記者之意, 以明學爲一部之本領, 仁爲斯學之全體, 而孝又爲爲仁之本也二十篇中, 無一篇不言仁, 無一事不言仁. 且首篇開端一學字, 繼言孝悌爲仁之本, 竊恐記者之意, 以明學爲一部之本領, 仁爲斯學之全體, 而孝又爲爲仁之本也. …… 茲敢以一仁字, 置中爲一部之大旨, 而爲仁本於孝, 盡孝而體此仁, 又本於學, 故就二十篇中, 類聚學, 孝, 仁三字, 以歸宿於全體之仁, 此非不佞之意也, 卽首篇首言學, 次言孝, 次言仁之意也.” 윤기륜(2015), 「鳳村 崔象龍의 『論語』 解釋의 特徵과 經學史的 位相」, 『대동문화연구』 Vol. 92, 대동문화연구원, pp.220-221의 번역 참조.

21) 『論語』 「學而」 1章,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22) 『論語』 「學而」 2章,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23) 윤기륜(2017), 「崔象龍의 『論語辨疑』 譯註」,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53-60.

24) 최석기(2007), 위의 논문 pp.617~646, 참조.

25) 최석기는 장현광의 「中庸圖」를 가장 이른 시기의 「中庸圖」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易學圖說』에 연달아 실려있는 「論語上·下圖」 역시 가장 이른 시기의 論語圖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석기(2018), 위의 논문, p.363. 참조.

『易學圖說』 6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논어』의 요지를 상·하 2장의 도표로 나타내었다.



그림 1-2 장현광-「論語上·下圖」 일부

이 도표는 『논어』의 내용을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약술하였는데, 특히 「論語上圖」와 「論語下圖」(이하 각각 「上圖」와 「下圖」로 지칭하겠다.)는 그 분류 기준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먼저 「상도」는 '論學'·'論仁'·'論政'·'論君子' 등 18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그린 것이고 「하도」는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별로 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항목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論語上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學</li> <li>· 道德容儀言動</li> <li>· 服食</li> <li>· 誨人</li> <li>· 論學</li> <li>· 論事親</li> <li>· 論禮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答問政</li> <li>· 祖述憲章</li> <li>· 事業行藏去就</li> <li>· 應接</li> <li>· 惡似之亂眞</li> <li>· 答問孝</li> <li>· 論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答問仁</li> <li>· 盡仁</li> <li>· 不許仁</li> <li>· 論政</li> <li>· 論君子</li> <li>· 答問士</li> </ul>
「論語下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顏子</li> <li>· 曾子</li> <li>· 閔子</li> <li>· 有子</li> <li>· 冉伯牛</li> <li>· 冉仲弓</li> <li>· 原憲</li> <li>· 南容</li> <li>· 子貢</li> <li>· 子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子夏</li> <li>· 子路</li> <li>· 子張</li> <li>· 樊遲</li> <li>· 宰我</li> <li>· 子華</li> <li>· 冉求</li> <li>· 子賤</li> <li>· 曾點</li> <li>· 漆彫開</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冶長</li> <li>· 高柴</li> <li>· 子禽</li> <li>· 申枨</li> <li>· 孺悲子</li> <li>· 互鄉童子</li> </ul>

표 1-1 장현광의 「論語上·下圖」 항목별 분류

「상도」에는 『논어』에 관련된 내용을 세분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보자.

조목	내용
論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剛毅木訥近仁</li> <li>· 知及之仁守之</li> <li>· 以文會友 以友補仁</li> <li>· 當仁不讓於師</li> <li>· 造次顛沛必於是</li> <li>· 我未見好仁者</li> <li>· 欲仁斯仁至</li> <li>· 觀過至仁</li> <li>· 依於仁</li> <li>· 仁者不憂</li> <li>· 仁者必有勇</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仁者安仁知者利仁</li> <li>· 惟仁者能好惡人</li> <li>· 仁者樂山靜壽</li> <li>· 欲立立人欲達達人</li> <li>· 里人爲美</li> <li>· 篤於親民興仁</li> <li>· 甚於水火</li> <li>· 有殺身而成仁</li> <li>· 可欺不可罔</li> <li>· 必世而後仁</li> <li>· 巧令鮮仁</li> </ul>
答問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進後獲 樊遲</li> <li>· 克己復禮 顏淵</li> <li>· 出門如見大賓 仲弓</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愛人 樊遲</li> <li>· 居處恭執事 樊遲</li> <li>· 恭寬信敏惠 子張</li> </ul>
盡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殷有三仁</li> <li>· 求仁得仁</li> </ul>
不許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君子而不仁者有矣</li> <li>· 克伐怨欲不行仁則不知</li> <li>· 不知其仁 焉用佞 雍也</li> <li>· 可使治賦不知其仁 子路</li> <li>· 可使爲宰不知其仁 冉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可與賓客言不知其仁 公西赤</li> <li>· 忠矣焉得仁 令尹子文</li> <li>· 清矣焉得仁 陳文子</li> <li>· 如其仁如其仁 管仲</li> </ul>

표 1-2 「論語上圖」 ‘仁’ 관련 조목 정리

위의 표는 「上圖」의 일부분으로 ‘論仁’·‘答問仁’·‘盡仁’·‘不許仁’로 분류한 내용 밑에 『논어』의 경문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論仁’에는 ‘仁者樂山靜壽’<sup>26)</sup>와 같은 ‘仁者’에 관한 내용과 ‘當仁不讓於師’<sup>27)</sup>와 같은 ‘仁’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答問仁’은 仁에 대하여 질문한 제자들에게 공자가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盡仁’은 공자가 인정하는 ‘仁’에 극진한 모습을 담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不

26) 『論語』 「雍也」 21章,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27) 『論語』 「衛靈公」 25章, “子曰, 當仁, 不讓於師.”

許仁'은 공자가 '仁'하다고 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인물평을 주로 실어 놓았다.

이와 같이 『논어』에서 언급되는 '仁'을 세분화하여 분류한 것은 '仁'을 간접적·비유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공자의 표현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sup>28)</sup> 이러한 방식은 공자의 추상적이고 다양한 '仁'의 면모를 여러 항목으로 정리함으로써 '仁'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하도」는 『논어』 경문을 26명의 인물별 분류에 따라 실어 놓았다. 「顔子」의 하위 내용을 보면, 「問仁請事四勿」<sup>29)</sup>로 적어놓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상도」의 「問仁」에 「克己復禮」로 표기한 「顔淵」 1장 경문의 다른 부분을 실어 놓은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장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구절로 나누어 「상·하도」에 각각 실어 놓은 것은 『논어』 경문의 내용을 빠트림 없이 분류하여 『논어』 전체의 내용을 모두 다루려 한 의도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장현광의 「논어상·하도」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통해 『논어』 전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살펴본 2개의 도표를 유형은 논어 전체를 다루어 하나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전도유형의 도설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두 도표는 항목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첫째, 최상룡의 「第三論語圖」는 『논어』 전체의 요지를 仁으로 파악하고 20편 전체를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한 도표로 '전체 요지파악 유형'이라 할 수 있고, 장현광의 「논어상·하도」는 『논어』 전체 내용파악에 중점을 두어 키워드에 따라 경문 자체를 분류한 것으로 '전체 내용파악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四書 관련 도설 가운데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과 『중용』 도설과 비교해 보면, 『대학』 도설의 「全圖」 유형은 전체의 요지를 三綱領·八條目에 맞추어 도식화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 안에서도 「敬」을 중심으로 삼강령·팔조목을 배열한 경우를 비롯하여 삼강령·팔조목을 종과 횡으로 배열한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28) 서근식(2009), 「『논어』의 '仁'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동양고전연구』 Vol.36, 동양고전학회, p.34.

29) 『論語』 「顔淵」 1章,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 由己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30)</sup> 또 『중용』 도설에서도 道問學·尊德性 같은 핵심어로 전체 요지를 뽑은 것, 주자의 6대절과 4대절설에 따라 33장 체제와 요지를 논의한 것, 자신의 견해로 대절을 나눈 것 등 약 3가지 이상의 전도 유형이 나타난다.<sup>31)</sup>

이에 비견하여 『논어』 전도는 그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 유형을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화 중심의 서술 형식을 띠고 있는 『논어』를 하나의 도표로 작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최상룡과 장현광의 「논어도」는 전도 유형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2. 분절도 유형

분절도 유형의 『논어』 도설로는 重齋 金梈(1896-1978)의 「第六論語圖」를 꼽을 수 있다. 그는 「經學十圖」를 저술하여 四書五經의 내용을 각 경전별로 함축적으로 요약하였는데,<sup>32)</sup> 『논어』와 관련하여 『논어』 20편에서 본인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5편을 뽑아 논리적 구성을 시도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30) 『大學』전체의 요지를 三綱領·八條目으로 맞추어 도식화 한 것이 ① 三綱領을 위에 횡으로 배열한 뒤, 八條目を 明明德과 新民 아래에 나누어 배치라고, 知止·定·靜·安·慮·得을 止於至善 아래에 배열하여 始終으로 삼은 경우, ② 三經령의 명명덕과 신민은 위에 횡으로 배열하고, 그 아래 중간지점에 지어지선을 배열한 경우, ③ 대학의 요지를 경으로 파악해 도표 중앙에 경자를 쓰고 삼강령·팔조목을 경자 주위에 배열한 경우, ④ 삼강령의 세로로 배열하고, 팔조목을 그 옆에 그려 넣는 경우, ⑤ 앞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경우, 총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누었다. 최석기(2005), 「『한국경학자료집성』의 특징과 그 연구방향」, 『한국경학자료집성』소제 『대학』해석의 특징과 그 연구 방향, 『대동문화연구』 Vol.49, 대동문화연구, pp.52~54 참조.

31) 최석기와 김유곤의 경우, 『중용』도설을 논함에 있어 『중용』의 요지를 대절 별로 나누어 그린 것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주희가 「독중용법」에 언급한 6대절설 또는 장하주의 4대절설을 비롯, 독자적인 대절설을 내세운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중용』에 등장하는 핵심어를 중용의 요지로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저도를 그린 유형 또한 포함한다. 『중용』전도의 분류에 대해서 최석기(2018), 위의 논문; 김유곤(2007), 위의 논문 참조.

32) 金梈, 『重齋先生文集』 卷43, 「雜著」-「經學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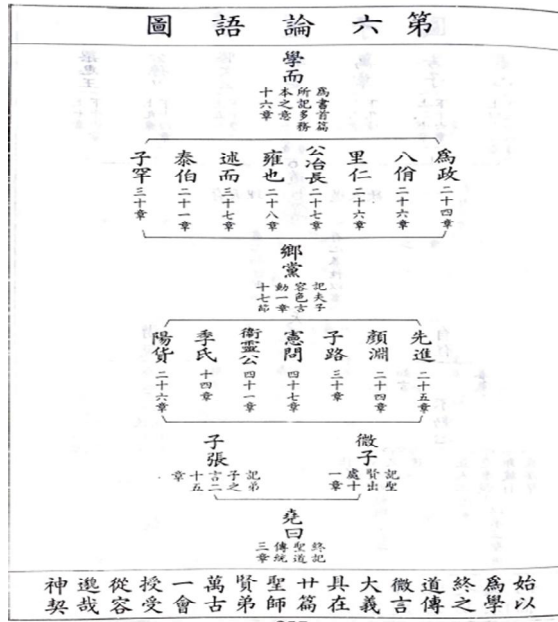


그림 1-3 김황의 「第六論語圖」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먼저 「學而」의 大旨를 ‘務本’으로 파악하여 단독으로 상단에 배치하였으며, 아래에 「爲政」에서 「子罕」까지 8편을 배열하여 ‘務本’의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또, 도표 중심에 「鄉黨」을 배치하여 『논어』의 가운데에서 공자의 행동거지를 강조하였으며, 그 아래에 「先進」부터 「陽貨」까지 총 7편을 배치하여 이 역시 공자의 행동을 형용한 편으로 파악한 듯하다.

그 밑으로 「微子」와 「子張」을 하나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대해 각각 ‘성현의 출처를 기록함[記聖賢出處]’, ‘제자들의 말을 기록함[記弟子之言]’이라 설명을 붙여 두 편을 나란히 배치해 두었다. 이는 『논어』의 말미에 있는 편으로서 「微子」에 仁者나 賢者들의 出處를 기록하여 학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둔 것인 듯하다.<sup>33)</sup> 또 「子張」을 따로 둔 것은 孔門弟子들 가운데 뛰어난 제자들의 말을 기록

33) 『論語集註』 「子張」 25章, “勉齋黃氏曰, 此篇, 多記仁賢之出處, 列於論語將終之篇, 蓋亦嘆夫子之道不行 以明其出處之義也. 其次第先後, 亦有可言者.”

한 것에 의미를 두어 공자의 道를 밝히기 위해 이와 같이 배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마지막 「堯曰」을 聖道를 전한 것으로 大旨를 파악하며 『논어』 전체의 구조를 종결하였다.

한편 김황이 편명 아래에 붙여놓은 贊을 통해 이러한 구조파악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어』는) 學으로 시작하여 道傳으로 마쳤으니 微言大義가 20편에 갖추어져 있다. 聖師와 賢弟가 萬古에 한 번 만나 주고받은 것이 從容하였고, 교유를 나누는 것이 오래되었다.<sup>35)</sup>

김황은 『논어』가 微言大義의 뜻을 담고 있으며 聖師와 賢弟가 학문을 교유하고 전수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인 공자의 언행을 형용한 「향당」과 앞선 賢聖의 出處를 기록한 「미자」, 孔門의 賢弟들의 말을 기록한 「자장」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판단된다.

김황의 「논어도」와 마찬가지로 「經學十圖」에 속한 『대학』·『중용』을 다룬 도표가 각각 논리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논어도」 역시 논리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sup>36)</sup> 또한 도표를 설명하는 說이 없어, 「위정」에서 「자한」까지 8편이 「학이」에 속한다는 것과 「향당」 아래로 「선진」부터 「양화」까지 편을 나열하여 「학이」의 ‘務本’과 「향당」의 孔子를 형용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도표를 통해서 추정할 내용이라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도설은 『논어』 한편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그려졌다.

34) 『論語集註』 「子張」 25章, “勉齋黃氏曰, …… 蓋論語一書, 記孔門師弟子之答問, 於其篇帙將終, 而特次門人高弟之所言, 自爲一篇亦以其學識, 有足以明孔子之道也.”

35) 金梈, 『重齋先生文集』 卷43, 「雜著」, “始以爲學, 終之道傳, 微言大義, 具在二十篇, 聖師賢弟, 萬古一會, 授受從容, 邈哉神契.”

36) 최석기·강현진(2012),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최석기(2013), 『조선시대 중용도설』, 보고서 참조.



주지하다시피 『논어』는 『대학』·『중용』과 달리 단편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관된 논리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대학』과 『중용』은 주자에 의해서 개정된 저작이기 때문에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 그 논리 구조와 편·장의 개정에 관해 끊임없이 다루어져 왔으며, 그 내용을 도표에 반영하여 각자의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논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가의 주요서적으로서 입지가 공고하였기 때문에 『대학』·『중용』 도설의 분절도 유형과 달리 적어도 『논어』 도설의 분절도 유형에서는 『논어집주』를 벗어나는 편·장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sup>37)</sup>

따라서 김황의 「논어도」 역시 주자의 大旨에 벗어나는 해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논어』 20편을 「학이」-「향당」-「미자」-「장자」-「요왈」 4단계로 분류함으로써 『논어』의 요지와 구성을 파악한 것으로 어록체 형식의 『논어』의 논리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장별 요지파악 유형

조선 전기 敬窩 金佺(1597~1638)는 장현광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학문의 요체를 전수받았으며,<sup>38)</sup>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栗谷 李珣(1536~1584)에 이르기까지의 經書類를 輯錄하고 해제를 비롯한 경서 관련 산문과 성리학 논변을 『海東文獻總錄』에 정리하여 실어 놓았다.<sup>39)</sup>

37) 조선시대 『論語』의 편장을 개정한 시도는 많지 않다. 그러나 遜庵 申成圭(1859~1938)는 『論語』 체제에 구애 받지 않고 장별로 요지를 파악한 뒤 『近思錄』의 체제를 본떠 17개의 항목으로 주제를 나누고 그 속에 각 장을 차례로 배열하여 새롭게 편차를 개정하였다. 『논어』는 한 편 안에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학문의 요령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는 복잡한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近思錄』처럼 『論語』를 내용 중심으로 주제어를 재편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석기(2015) 「遜庵 申成圭의 『論語講義』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참조.

38) 박학래(2009), 「『海東文獻總錄』과 敬窩 金佺」, 『민족문화연구』 Vol.5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234.

그의 경학 관련 자료는 『敬窩集』 5권 「朝聞錄」·「朝聞補錄」 등에 실려 있는데, 「大學圖」와 「中庸首章圖」를 비롯하여 『詩經』과 『書經』에 관한 도설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의 『논어』 관련 도설은 「吾道一貫章圖」·「曾子三省圖」·「朝聞道夕死可圖」·「好德如好色圖」가 있다. 그의 『논어』 도설은 모두 특정 장에 대하여 도식화한 것인데, 그 중 「吾道一貫章圖」와 「朝聞道夕死可圖」를 통해 장별 요지파악 유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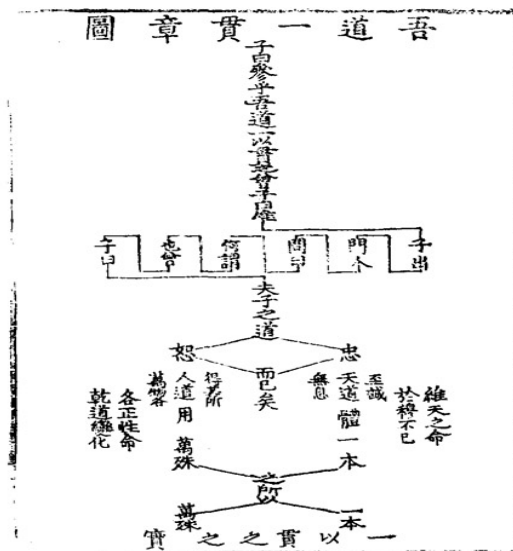


그림 1-4 김휴의 「吾道一貫章圖」

이 도표는 『논어』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一以貫之’章을 도식화한 것이다.<sup>40)</sup> 이 도표를 살펴보면, ‘子曰參乎，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를 상단 중심에 두고 아래 증자가 답한 ‘夫子之道’를 충과恕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나누었다. 이는 『論語集註』에 程子の 말을 옮긴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39) 이영호(2019), 위의 책, p.272.

40) 『論語』 「里仁」 15章, “子曰，參乎。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子出，門人問曰 何謂也？曾子曰 唯。夫子之道，忠恕而已矣。”

程子が 말씀하셨다. “자신으로써 남에게 미치는 것은 仁이고, 자기를 미루어서 남에게 이르는 것은 恕이니, 忠과 恕가 ‘道와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다. 忠과 恕는 하나로 관통하니 忠은 天道이고 恕는 人道이며 忠은 망령됨이 없고 恕는 忠을 행하는 것이다. 忠은 體이고 恕는 用이니 大本과 達道이다. 이것이 ‘道와 거리가 멀지 않다.’라는 것과 다른 점은 天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 말씀하셨다. “天命이 深遠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忠이요, 乾道가 變化하여 각기 性命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恕이다.”<sup>41)</sup>

지극히 정성스러워 쉬이 없다는 것[至誠無息]은 道의 體이니 萬殊가 一本이 되는 까닭이고, 萬物이 각기 제 자리를 얻는 것[得其所]은 道의 用이니, 一本이 萬殊가 되는 까닭이다. 이것으로써 살펴보면 一以貫之의 實際를 알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첫 번째 인용문에서 程子は 忠과 恕를 天道와 人道로 구분하여 天道에 해당하는 忠이 중심이 되고, 恕는 忠을 이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體用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김휴는 이 견해를 따라 충과 서를 天道·人道와 體·用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주자는 道의 體는 지극히 정성스러워 쉬이 없기[至誠無息] 때문에 만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 하나의 근본이 되고, 道의 用은 만물이 각자의 자리를 얻는 것임을 밝혔다. 이 때문에 하나의 근본이 만 가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여, ‘一以貫之’의 뜻을 밝혀 놓았다. 따라서 忠 아래에 ‘天道’·‘無息’·‘至誠’을, 恕 아래에 ‘人道’·‘得其所’·‘萬物’을 배열함으로써 忠과 恕에 대하여 항목을 정리하고, 아래

41) 『論語集註』 「里仁」 15章, “程子曰 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 違道不遠, 是也. 忠恕, 一以貫之, 忠者, 天道, 恕者, 人道. 忠者, 無妄, 恕者, 所以行乎忠也. 忠者, 體, 恕者, 用, 大本達道也. 此與違道不遠異者, 動以天爾.”(이에 대해서는 김동인의 2명(2009), 『(세주완역) 論語集註大全: 동양철학의 향연』 Vol.1, 과주: 한울 번역 참조.)

42) 『論語集註』 「里仁」 15章, “蓋至誠無息者, 道之體也, 萬殊之所以一本也. 萬物各得其所者, 道之用也, 一本之所以萬殊也. 以此觀之, 一以貫之之實可見矣.”(이에 대해서는 한국고전번역원DB의 번역 참조.)

에 一以貫之의 원리를 밝혀 놓았다. 다음으로는 「朝聞道夕死可圖」를 통해 그의 『논어』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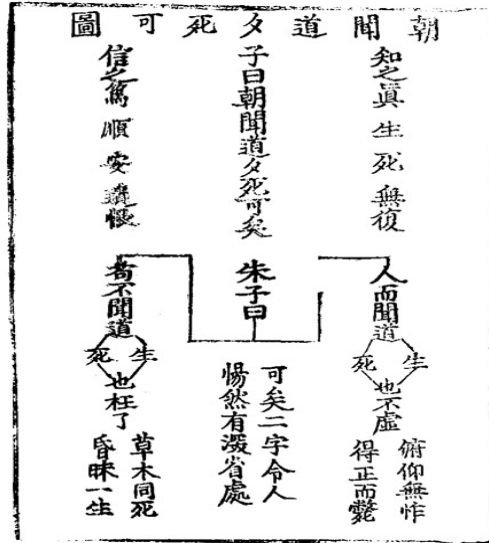


그림 1-5 김휴의 「朝聞道夕死可圖」

위의 도표는 「里仁」 8장<sup>43)</sup>을 도표화한 것이다. 이 도를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朱子曰’을 기준으로 하여 상단은 경문의 뜻을 주자의 주석을 바탕으로 圖解 한 것이고, 아래로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상단을 살펴보면, 경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知之眞’-‘生’-‘死’-‘無復’을 왼쪽에는 ‘信之篤’-‘順’-‘安’-‘遺恨’을 배치하였다. 이는 주자가 “진실로 道를 들을 수 있다면, 살아서[生]는 순응[順]하고 죽어서[死]는 편안[安]할 것이니 다시는 여한이 없을 것이다[無復遺恨]”라고 한 말을 경문을 중심으로 대응시켜 배치한 것이다.<sup>44)</sup> 이는 경문을 주자의 견해와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3) 『論語』 「里仁」 8章, “朝聞道, 夕死可矣.”

44) 『論語集註』 「里仁」 8章, “道者, 事物當然之理. 苟得聞之, 則生順死安, 無復遺恨矣. 朝夕, 所以甚言其時之近.”

도표 하단에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었는데,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아침에 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것은 道를 들은 자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면서 道를 들으면 비록 죽더라도 사는 것과 같고 만약 道를 듣지 못했다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 참되게 알면 독실하게 믿을 수 있고 독실하게 믿으면 굳게 지킬 수 있어서 살아서는 道에 순응하고 죽어서 평안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이를 헛되이 살지 않고 헛되이 죽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道를 들으면) 삶이 참으로 좋을 것이니 죽음이 또 어찌 한스럽겠는가? 성인이 말을 세워 후손에게 열어준 뜻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개 道를 듣는 것에 뜻을 둔 이가 마땅히 두려워하며 깊이 살펴야 할 지점이다.”<sup>45)</sup>

김휴는 ‘道를 들은 자’와 ‘道를 듣지 못한 자’로 나누어 삶과 죽음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道를 들은 이는 生死가 헛되지 않아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부끄럼이 없고, 바름을 얻어 죽을 수 있음을 밝혔다. 반면 道를 듣지 못한 이는 생사가 잘못되어 초목과 같이 죽고 일생동안 혼매함을 밝혔다. 이는 程子가 “道를 들으면 사람이 된 까닭을 알게 된다.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것은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sup>46)</sup>라고 한 주석을 참고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장에 대하여 ‘聞道’와 ‘不聞道’를 관건으로 두고 삶과 죽음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도표를 살펴본 바, 김휴의 『논어』 해석은 주로 『論語集註』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표를 해석하는 설 또한 『論語集註』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실어 놓았다. 그는 자신의 도표는 元代 程復心(1255~1340)의 도설을 참조하여 그린 것이라고 밝혀 놓았는데,<sup>47)</sup> 정복심의 『논어』

45) 金佺, 『敬窩集』 卷5, 「雜著」, “朝聞道夕死可矣者, 非謂聞道者必死, 甚言道不可不聞耳. 人而聞道, 則雖死猶生. 道苟不聞, 雖生猶死. 蓋能真知而篤信之, 篤信而固守之, 以至於存順歿寧之境, 則是可謂不虛其生, 不虛其死. 生固好矣, 死亦何恨. 聖人立言啓後之意, 可謂至矣. 此蓋有志於聞道者, 所宜惕然深省處也.”

46) 『論語集註』 「里仁」 8章, “程子曰 聞道知所以爲人也. 夕死可矣, 是不虛死.”

47) 金佺, 『敬窩集』 卷5, 「雜著」, “…… 而其他條目工夫, 則分類對置, 從傍排列, 大槩略倣林隱圖而爲之者也. 茲敢引

관련 도설에서 같은 그림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정복심이 『논어집주』를 바탕으로 각 장별 도표를 그린 것을 참고하였으며, 그 도표의 형식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참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48)</sup> 또 『논어』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논어집주』의 내용을 대부분 따르고 있어 새로운 견해를 밝혔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장을 도해함으로써 해당 장에서 김휴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지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程朱의 주석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발전시키고 구조화했다는 것에서 장별 요지를 파악하는 도설로 특징이 있다.

#### 4. 핵심주제어별 요지파악형

핵심주제어에 관한 도설은 四書관련 도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유형이다. 그 중 『대학』에서는 三綱領과 八條目에 관한 도설이 나타나고,<sup>49)</sup> 『중용』에서도 人心道心·天命·費隱·九經 등과 같은 핵심주제어에 관한 도설이 나타난다.<sup>50)</sup> 주지하다시피 『논어』는 단편적인 서술로 이루어진 저작이다. 이 때문에 『논어』의 전체적인 요지와 논리구조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博文約禮·克己復禮·仁 등의 핵심주제어에 관한 도설은 간혹 나타난다. 한편 『논어』의 핵심주제어들은 『논어』 전반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타는 경향이 있어 관련있는 여러 장들을 포함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아래 南溪 朴世采(1631~1695)의 「顔子傳授爲仁圖」를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

先生發明林圖之說以證之. 覽者詳之.”

48) 정복심 著; 전병욱 譯(2018), 『四書章圖: 櫟栝總要』, 서울: 세창출판사, p.156.

49) 최석기(2007), 위의 논문 p.53.

50) 최석기(2018), 위의 논문 p.382.



之用]에는 ‘用則行’·‘舍則藏’을,<sup>56)</sup> 극기복례의 증험[克復之驗]에는 ‘能問不能’·‘多問寡’·‘有若無’·‘實若虛’·‘犯而不校’를<sup>57)</sup> 배열하여 5가지로 나타내었다. 그 아래에 「子罕」 10장<sup>58)</sup>과 「衛靈公」 10장<sup>59)</sup>의 내용을 배치하여 안연의 학문이 이른 경지를 나타냈다. 그는 도표의 설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博文約禮’와 ‘克己復禮’와 같은 것은 진실로 성인 문하의 大法이니 다른 ‘不遷怒’·‘不貳過’·‘無伐善’·‘無施勞’ 등의 말은 모두 공부를 착수할 점이 있어 스승으로 삼을 만하고 행할만하다. 南冥 曹植이 일찍이 도를 그렸으니『學期類編』에 다루어 붙여놓았다. 지금 삼가 수정하고 보충을 더 하였으니 아마도 이로 인해 顔子の 학문이 세상에 크게 밝혀지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언행을 기록한 것이 드물고 적은 듯하나 요컨대 體用·本末은 曾子·子思·孟子 세 분의 全書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sup>60)</sup>

그는 위의 도표에 대하여 상단의 ‘博文約禮’와 ‘克己復禮’는 성인이 顔淵에게 전해준 학문의 大法임을 밝혔으며, 그 아래 ‘克己’의 日·事·功·用·驗에 대해서는 안연이 실천한 것으로, 배우는 자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행동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 55) 『論語』「雍也」 2章, “哀公問 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顔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
- 56) 『論語』「述而」 10章, “子謂顔淵曰 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 有是夫. 子路曰 子行三軍則誰與?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
- 57) 『論語』「泰伯」 5章, “曾子曰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 昔者吾友嘗從事於斯矣.”
- 58) 『論語』「子罕」 10章, “顔淵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
- 59) 『論語』「衛靈公」 10章, “顔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 60)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 卷19, 「雜著」, “如博文約禮, 克己復禮, 固爲聖門之大法, 而它如不遷怒不貳過, 無伐善無施勞等語, 皆有工夫下落, 可師可行. 南冥曹氏問嘗作圖, 蓋附於所撰學記中. 今謹更加修正添補, 庶幾因此使顔子之學大明於世. 誠以其言行雖似鮮少, 要之體用本末, 足以無遜於曾思孟三子全書故爾.”



박세채는 안연이 전수받은 학문에 관하여 도표를 그리면서 안연과 관련된 장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는데, 孔門의 大法으로부터 안연의 克己工夫의 구체적 예, 그리고 이를 통해 안연 학문의 성과까지 순차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안연의 학문이 배우는 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 그는 인용문에서 南冥 曹植(1501~1572)의 『學期類編』에 실린 「博文約禮圖」에 수정·보충을 거쳐 작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61)</sup> 두 도설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남명 조식의 「博文約禮圖」	박세채의 「顔子傳授爲仁圖」
<p style="text-align: center;"><b>博文</b></p> <p style="text-align: center;">知 明善 擇善 精</p> <p style="text-align: center;">[致知格物]</p> <p style="text-align: center;"><b>約禮</b></p> <p style="text-align: center;">行 誠身 固執 一 誠意 力行</p> <p style="text-align: center;">[克己復禮]</p>	<p style="text-align: center;"><b>約禮</b>                      <b>博文</b></p> <p style="text-align: center;">服膺不失                      擇乎中庸</p> <p style="text-align: center;"><b>復禮</b>                      <b>克己</b></p> <p style="text-align: center;">知之未嘗復行                      不善未嘗不知</p>
<p style="text-align: center;">視物 聽勿 言勿 動物</p> <p style="text-align: center;">自外入 自內出</p> <p style="text-align: center;">[克己之目]</p> <p>不遷怒                                      無伐善</p> <p>不貳過                                      無施勞</p> <p>[克己之功]                                      [克己之事]</p> <p style="text-align: center;">三月不違                                      能問不能</p> <p>用之行                                      [未達一間]                                      多問寡</p> <p>舍之藏                                      有若無</p> <p>[初無固必]                                      實若虛</p>	<p style="text-align: center;">非禮勿視 非禮勿聽</p> <p style="text-align: center;">非禮勿言 非禮勿動</p> <p style="text-align: center;">[克己之目]</p> <p>無伐善                                      不遷怒</p> <p>無施勞                                      不貳過</p> <p>[克己之事]                                      [克己之功]</p> <p style="text-align: center;">三月不違                                      能問不能</p> <p>用之行                                      多問寡</p> <p>舍之藏                                      有若無</p> <p>[克己之用]                                      實若虛</p>

61) 최석기는 『學記類編』은 南冥의 독서기인 『學記』를 문인 鄭仁弘(1535~1623)이 『近思錄』의 체제에 맞추어 14장으로 분류해서 南冥 사후에 간행한 책이며, 그 중 『學記圖』는 南冥이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적출하여 기록하는 한편,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도표화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學記圖』에는 모두 24圖가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17개가 南冥의 자작도임을 밝혔다. 나머지 7개의 도에 관해서는 『性理大全』이나 『程復心の『四書章圖』와 같은 다른 도설을 참고하여 부가설명을 붙인 것이라 언급하였다. 『學記圖』에 관해서는 최석기(1999), 「南冥思想의 本質과 特色」,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2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p.52 참조.

犯而不校 [幾於無我]	犯而不校 [克己之驗]
不改其樂 [此博文約禮之眞積]	不改其樂 欲罷不能 仰彌高 鑽彌堅 瞻在前 忽在後 如有所立 爲邦 放鄭聲 行夏時 乘殷輅 服周冕 樂則韶舞 遠佞人

표 1-3 조식의 「博文約禮圖」와 박세채의 「顔子傳授爲仁圖」

두 도표는 공통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조식의 「박문약례도」의 상단을 살펴보면, ‘博文’과 ‘約禮’를 각각 ‘知’와 ‘行’의 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학문에 있어서 ‘博文’은 ‘知’의 일로 기준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과정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래에 ‘格物致知’를 배치한 것이다. ‘約禮’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行’의 단계로 실제 일에 접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욕을 극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克己復禮’를 하위항목으로 배치한 것이다.<sup>62)</sup>

반면 박세채는 ‘博文約禮’와 ‘克己復禮’를 같은 반열에 올려 동등하게 聖人の 대법으로 보았으며, ‘박문약례’의 사례를 안연의 사람됨을 언급하는 『中庸』 8장<sup>63)</sup>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였고 ‘극기복례’ 역시 『周易』 「繫辭傳下」 復卦<sup>64)</sup>의 안연의 道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였다.

또 중간 부분을 살펴보면, 조식은 하위항목으로 ‘극기복례’의 하위항목으로 ‘克己之事’·‘克己之功’·‘幾於無我’·‘初無固必’·‘未達一間’으로 나누었는데, 박세채가 ‘克己之功’·‘克己之事’·‘克己之驗’·‘克己之用’으로 분류한 것과 항목의 이름만 다를 뿐 세부내용은 일치한다. 다만 차이점을 꼽는다면, 조식이 위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극기공부의 항목이 아닌 博文約禮를 통해 나타나는 이상적인 사례를 설명한

62) 최석기(1999), 위의 논문, pp.56~58.

63) 『中庸章句』 8章, “子曰, 回之爲人也, 擇乎中庸, 得一善, 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

64) 『周易』 「繫辭傳下」, “顔氏之子其殆庶幾乎. 有不善, 未嘗不知, 知之未嘗復行也.”

것이고 박세채의 분류는 극기공부를 위주로 항목을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단을 살펴보면, ‘博文約禮之眞積’으로써 ‘不改其樂’<sup>65)</sup>만 배치한 조식과 달리 박세채는 같은 위치에 안연이 도달한 학문의 성과를 ‘不改其樂’과 ‘爲邦’<sup>66)</sup>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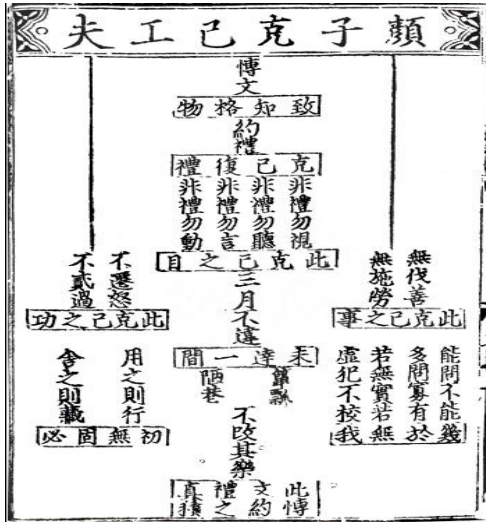


그림 1-7 정복심의 「顔子克己工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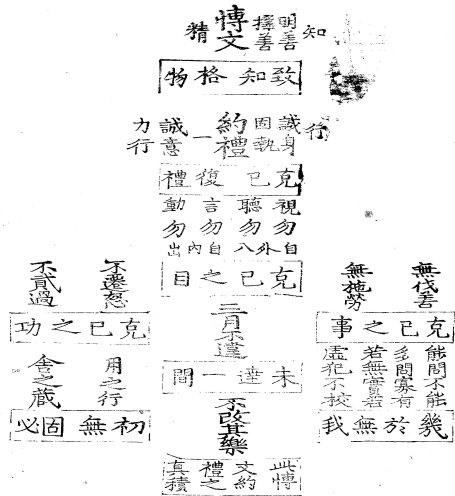


그림 1-8 조식의 「博文約禮圖」

또한 조식의 「博文約禮圖」는 정복심의 「顔子克己工夫」와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띤다. 조식은 博文과 約禮 옆에 몇 개의 단어를 덧붙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예컨대, ‘博文’ 좌우에 知·精·明善·擇善을 부기하여 학문을 함에 있어서 박문이 ‘격물치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約禮’ 좌우에는 行·誠身·固執·一·誠意·力行을 덧붙여 마음을 다하고 힘써 실천해야 하는 ‘극기복례’로의 연관성을 구체화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67)</sup>

65) 『論語』「雍也」9章,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  
 66) 『論語』「衛靈公」10章, “顏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상술한 바에 따르면, 첫째, 박세채는 『논어』의 핵심주제어인 ‘박문약례’, ‘극기복례’를 聖人の 大法으로 기준을 삼고, 이를 따른 안연의 학문에 대한 도표를 그렸으며, 『논어』에서 안연과 관련 있는 여러 장을 인용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핵심주제에 관한 이해에 깊이를 더 하였다.

둘째, 박세채의 「顔子傳授爲仁圖」는 조식의 「博文約禮圖」를 참고하여 안연의 학문과 공문의 가르침에 대한 『논어』의 핵심키워드를 도표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조식 또한 정복심의 도표를 참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논어』 도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 『논어』의 전도 유형은 ‘전체 요지파악 유형’과 ‘전체 내용파악 유형’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최상룡의 「第三論語圖」를 들 수 있으며, 그는 『논어』의 요지를 仁으로 파악하고 『논어』 20편의 내용을 仁·學·孝 세 가지로 분류하여 도표로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다. 후자에 해당되는 장현광의 「論語上·下圖」는 『논어』 전편의 내용을 주제별, 인물별로 분류함으로써 『논어』 내용 파악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절에서는 『논어』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한 분절도 유형을 살펴보았다. 김황은 「第六論語圖」에서 『논어』의 주요 5편을 뽑아 4단계 논리적 구조를 밝혔는데, 『논어집주』의 大旨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개별일화 중심의 서술인 『논어』를 유기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 3절에서는 특정 장을 이해하기 위해 장별로 요지를 파악한 유형으로 김휴의 「吾道一貫章圖」와 「朝聞道夕死可圖」를 살펴보았다. 이 두 도설은 『논어집주』를 바탕으로 경문과 주석을 아울러 도표에 반영하였으며 경문과 주석을 자신의 견해에 따라 해석하여 도표를 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4절에서는 박세채의 「顔淵傳授爲仁圖」를 통해 ‘顔淵’, ‘博文約禮’ ‘克己復禮’와

67) 이승환(2012), 「남명 「학기도」자도설 비정 -南冥「學記圖」自圖說批正-」, 『철학연구』 Vol.46,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pp.105~106 참조.

같은 『논어』의 핵심어를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도표를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도설을 작성하면서 先儒의 도설을 계승하고 자신의 견해로 보충함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술하였듯이 『논어』 관련 도설은 수가 많지 않아 그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대학』·『중용』 도설을 비교군으로 놓고 『논어』 도설을 검토한다면,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드러날 것이며, 이를 통해 『논어』 도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본고에서 주되게 다루고자하는 백봉래의 『논어』 도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도설의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제3장 백봉래 『논어』 도설의 유형과 특징

九龍齋 白鳳來(1717~1799)는 四書三經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도설형식을 빌려 『三經通義』와 『四書通理』를 저술하였다. 백봉래는 『사서통리』의 서문격인 「四書通理之圖」에서 저술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아! 세상의 학자들 중에 『中庸』·『大學』이 表裏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論語』·『孟子』가 本末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면서 스스로 三經의 뜻에 능하다고 하는 자들은, 아마도 온당치 않을 듯하다. 후학들이 規模로서 『大學』을 읽고, 根本으로서의 『論語』를 암송하고, 『孟子』의 發越하는 데에서 正心하고 『中庸』의 微妙한 데에서 誠意한다면, 공자가 산삭하여 서술하신 뜻을 『周易』 「繫辭傳」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뒤에 三經의 經緯와 四書의 體用을 만분의 일이나마 밝힘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감히 「四書通理之圖」를 만들어 義에 통하는 뜻을 밝혔다. 義·理는 본래 두 가지가 아니니, 경서를 관통한 뒤에야 義理之學이 될 수 있다.<sup>68)</sup>

백봉래는 『대학』은 학문의 規模로, 『논어』는 학문의 根本으로, 『맹자』는 학문의 發越로, 『중용』의 학문의 微妙로 四書에 대하여 각각의 본령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주자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지점으로 그가 四書を 주자의 학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그는 四書を 각각의 본령에 맞게 인식한다면 공자가 三經을 산삭한 뜻을 『주역』의 「계사전」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는 三經과 四書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체용관계를 가진다는 그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69)</sup>

6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大學』. “噫. 世之學者, 不知庸學之表裡, 全昧語孟之本末, 而自能於三經之義者, 恐或未安. 後之學者, 讀大學以規模, 誦論語以根本, 而正心於孟子之發越, 誠意於中庸之微妙, 則吾夫子刪序之義, 可考於易之繫辭矣. 然後三經之經緯, 四書之體用, 庶有萬一之明焉. 敢爲通理之圖, 以明通義之志. 義理本無二, 致貫通經書, 然後可爲義理之學.”(이에 대한 번역은 최석기(2012), 위의 책, p.277 참조.)

69)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大學』. “吁. 三經爲體, 四書爲用, 則通義者三經, 通理者四書.”

따라서 백봉래가 도설을 통해 四書を 도해한 것은 후에 三經을 잘 이해하기 위한 전초단계이며, 三經을 관통하는 經緯의 義와 四書を 관통하는 體用의 理를 밝히기 위해 『사서통리』를 지은 것이라 밝혔다.

도설이란 난해한 뜻을 그림으로 그려 일목요연하게 형용함으로써 분석하여 설명하는 형식으로, 도설은 개념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도면해설의 역할을 하겠지만 하나의 경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개괄적인 간이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70)</sup> 즉, 경서를 도해한다는 것은 개념간의 유기적 관계를 도시화하고 개념의 단순화를 통해 경서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봉래 역시 이러한 지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주된 저술 형식을 도설로 취한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백봉래는 四書와 三經을 모두 도설로 분석하였다. 四書を 다룬 『사서통리』는 『대학』-13圖, 『논어』-14圖, 『맹자』-13圖, 『중용』-15圖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대상인 『論語通理』의 도설은 「論語爲學之根本之圖」·「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爲政以德如北辰居所之圖」·「禘爲王者之大」·「關雎爲中和之本」·「夫子道一貫之圖」·「歎不復夢見周公之圖」·「泰伯至德圖」·「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與曾點便有堯舜氣象圖」·「克己復禮爲仁體用之圖」·「顏淵問爲邦之圖」·「夫子問津不告津之圖」·「歷敘群聖以終篇儀之圖」 총 14개<sup>71)</sup>로 필자가 확인한 『논어』 도설의 저자 가운데 단일 학자로서 가장 많은 『논어』 도설을 저술하였다.

각 도설을 살펴보면 『논어』 전체를 다루는 도설부터 특정 장을 다루는 도설까지 다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논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유형과 연관지어 백봉

70) 서경요(2003), 『한국유교지성론』, 유교문화연구총서 Vol.2,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118.

71) 『四書通理』에 실제로 실린 도설을 13개이다. 「泰伯至德圖」는 그림이 직접 실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다른 저술에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제외된 듯하다. 하지만 『논어통리』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도표에 관하여 짤막하게나마 설명을 해놓았기에 본고에서는 14개로 지칭하겠다.

래의 『논어』 도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백봉래의 『논어』 도설이 『논어』를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한 점을 미루어 보아 조선시대 『논어』 도설과 비교를 통해 백봉래 『논어』 해석의 특징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1. 전체요지 파악 도설

백봉래의 「論語爲學之根本之圖」는 14개의 도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도설로, 백봉래가 파악한 『논어』의 전체적인 내용과 요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 도설은 『論語通理』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도설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백봉래는 『논어』를 학문의 근본으로 인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논어』는 유가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도덕·광휘를 형용하고 살펴 기록한 것이라 규정하였으며,<sup>72)</sup> 공자의 언행이 만물의 이치와 부합하여 天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sup>73)</sup> 이러한 전제하에 그는 『논어』 전체를 다룬 도설을 저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도설과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7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論語何爲而作也? 門弟子形容夫子之道德光輝, 而省記之也.”

73)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吾夫子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不違, 後天而奉天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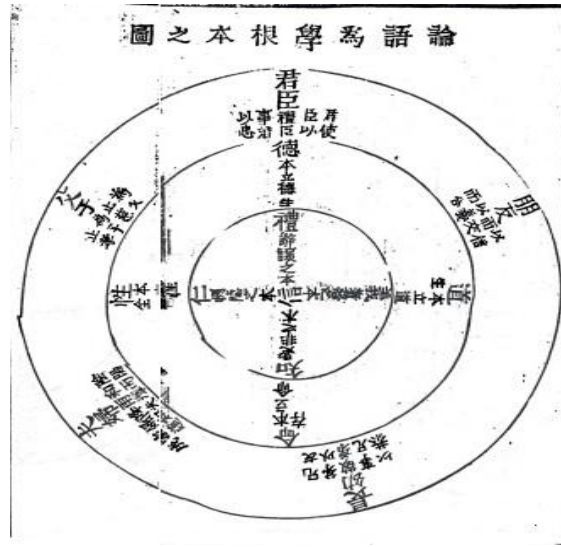


그림 2-1 백봉래의 「論語爲學根本之圖」

백봉래의 도설은 대체로 원형이 중첩된 형태를 나타내는데, 위의 도표 역시 원이 3개로 중첩된 형태를 띠고 있다. 가장 안쪽 원을 살펴보면 仁·義·禮·智·信을五行의 원리에 따라 배치하였으며, 信을 제외한 仁·義·禮·智 아래에 각각 惻隱·羞惡·辭讓·是非之本을 배열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惻隱·羞惡·辭讓·是非之心이 仁·義·禮·智 4本을 근본으로 삼아 발현되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중간 원에는 道·命·德·性を 4德이라 규정하고 이를 4本에 각각 대응시키면서 「學而」 2장의 ‘本立而道生’을 확대한 논리를 적용하여 ‘근본이 확립되면 性이 온전해지고[本立而性全], 德이 생겨나고[本立而德生], 道가 생겨나고[本立而道生], 命이 보존되며[本立而命存], 이는 곧 仁·義·禮·智가 된다’는<sup>74)</sup>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는 4本과 4德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4본이 확립되면 4덕에 영향을 미쳐 性全·道生·德生·命存과 같은 작용이 일어나게 되며 그 결과로 本然之性으로서의 仁義禮智가 이

74)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惻隱以仁爲本, 羞惡以義爲本, 辭讓以禮爲本, 是非以知爲本, 則本立而性全者仁也, 本立而德生者禮也, 本立而道生者義也, 本立而命存者知也.”

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냈다.

한편 그는 仁義禮智가 확충된 것을 ‘信’으로, 道命德性이 겸비된 것을 ‘理’로 인식하였다.<sup>75)</sup> 먼저 ‘信’에 대해서는 주희가 “信은 仁義禮智 네 가지 덕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니 이 仁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 義·禮·智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모두 그러한 것이다.”<sup>76)</sup>라고 언급한 ‘實’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77)</sup>

또 ‘理’를 道命德性 4덕이 겸비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道-『대학』 命-『중용』 德-『논어』 性-『맹자』로 인식하여 각각 則規之學·顯妙之學·務本之學·發越之學으로 四書を 규정하는 백봉래의 견해와 관련지을 수 있는데, 이는 四書を 관통하는 이치[理]로써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78)</sup> 이는 『논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仁·義·禮·智·信을 벗어나지 않으며 四書 전체의 본령과도 대응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그는 바깥 원의 五倫을 배치함으로써 『논어』의 요지를 도출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난다.

有子가 말하기를 “근본이 서고서 道가 생겨난다.”라고 하였으니 『論語』 전편은 ‘務本’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惻隱·羞惡·是非(·辭讓)는 仁의 단서가 되고 道·命·德·性은 本이 된다. 무엇으로 밝힐 수 있는가? 말하자면 君臣은 禮가 근본이 되고, 夫子는 孝가 근본이 되고, 夫婦는 道가 근본이 되고, 長幼는 敬이 근본이 되고, 朋友는 信이 근본이 된다. 온갖 말이 ‘務本’의 의미가 아닌 것이 없고 一進一退 역시 務本의 의미가 아닌 것이 없다. 공자 문하에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음에 道를 체득하고 마음을 보존하며 자신을 극복하고 성찰하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를 형용할 수 있겠는가?<sup>79)</sup>

75)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仁義禮知之擴充者信, 故道命德性之兼備者理也.”

76) 『朱子語類』 卷6, 「性理三」, “曰信是誠實此四者, 實有是仁, 實有是義, 禮智皆然.”

77) 정지연(2016),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바라본 『論語』의 信 관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78) 최석기·강현진(2012),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사, pp.276~281 참조.

백봉래는 五倫이 禮·孝·道·敬·信에 근본한다는 것을 제시하여 『논어』의 요지가 務本임을 드러냈다. 그는 五倫이 仁·義·禮·智·信에 해당한다는 北溪陳氏의 견해와 관련지어<sup>80)</sup> 五倫의 本이 되는 禮·孝·道·敬·信 역시 五常이라는 근본에 힘을 써야만이 행할 수 있는 법도임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백봉래는 『논어』 내용이 근본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봉래의 「論語爲學根本之圖」는 『논어』가 학문이 근본이 되는 근거를 공자의 도덕·광휘를 담고 있으며 仁·義·禮·智·信과 道·命·德·性이라는 유가의 기본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통해 드러내었다. 또 그는 五倫과 五常의 상관관계를 들어 『논어』 전편이 ‘務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務本은 「學而」의 大旨로 꼽히는 개념인데 백봉래의 경우는 『논어』를 학문의 근본으로 인식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務本의 범위를 『논어』 전체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백봉래는 「論語爲學根本之圖」를 통해 『논어』 전체의 요지와 근거두고 있는 원리를 도설로 풀어내었다. 이는 앞서 제2장 1절에서 살펴본 『논어』 도설의 전도유형 중 ‘전체 요지파악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논어』 도설은 그 표본의 수가 적어 함부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2. 논리구조 파악 도설

79)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有子曰本立而道生云爾, 則論語全篇, 無非務本之意也. 惻隱羞惡是非者, 爲仁之端, 道命德性者, 爲之本也. 何以明之? 言君臣則禮爲本也, 言父子則孝爲本也, 言夫婦則道爲本也, 言長幼則敬爲本也, 言朋友則信爲本也. 千言萬語, 莫非務本之義. 一進一退, 亦莫非務本之義. 孔門之多嗜學也, 如非體道而存心, 克己而省察者, 孰能形容於此哉.”

80) 『性理大全書』 卷37, 「性理九」, “北溪陳氏曰, 父子有親便是仁, 君臣有義便是義, 夫婦有別便是禮, 長幼有序便是智, 朋友有信便是信.”

백봉래는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를 통해 『논어』 20편의 大旨를 파악하고 이를 총 7권으로 분류하였다. 도표를 살펴보면, 백봉래는 주자가 『논어집주』에 20편의 대지를 파악한 것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자가 각 편의 내용이 다양하여 하나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언급하지 않은 몇몇 장에 대해서 나름의 대지를 파악하여 언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1)</sup>

먼저 안쪽 원에는 仁·義·禮·智·信을 두어 『논어』 전체가 本으로 삼는 바를 표현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論語爲學之根本之圖」에서 백봉래가 『논어』 전체의 뜻이 仁·義·禮·智·信을 반영한다는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논어』 20편이 仁·義·禮·智·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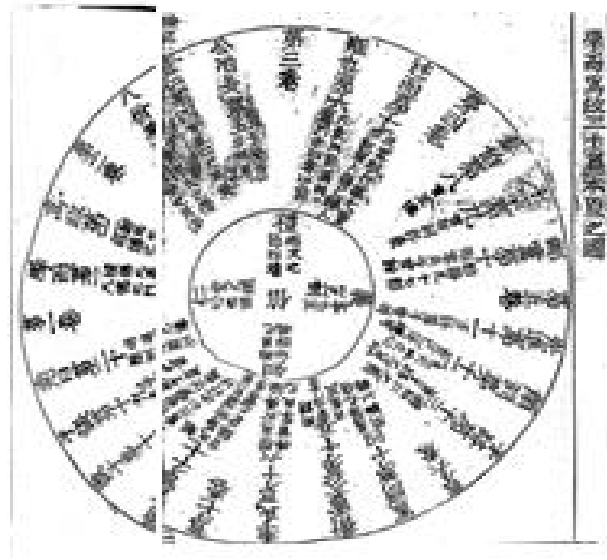


그림 2-2 백봉래의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

81) 최석기(2015), 「遜庵 申晟圭의 『論語講義』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7,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p.166.

바깥쪽 원에는 20편이 차례로 둥글게 배열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도표를 설명한 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주장은 『논어』의 「學而」와 「爲政」을 20편의 본원이 된다는 것이다. 백봉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학이」와 「위정」이 20편의 강령이 되는 근거를 三經의 체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周易』이 乾·坤卦를 바탕으로 64괘가 만들어졌으며, 『詩經』 300편은 「周南」·「召南」을, 『書經』 50편은 「堯典」·「舜典」을 바탕으로 엮었다는 것이다. 또 孔門의 제자들이 공자가 三經을 편찬한 뜻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학이」와 「위정」을 『논어』의 본원으로 삼았다고 설명하였다.<sup>82)</sup> 둘째, 「학이」를 智로, 「위정」을 仁으로 인식하여 학문의 쓰임이 위정에서 베풀어지고 정치의 근본이 학이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智는 禮樂詩書, 仁은 道命德性에 해당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이」와 「위정」이 道와 실천의 관계임을 설명하였다.<sup>83)</sup> 즉, 백봉래는 「학이」와 「위정」에는 학문의 근본과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천지의 大經·大法이 되며, 『논어』 20편의 강령이 됨을 밝혔다.

두 번째로 그는 「향당」을 『논어』의 樞要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그는 『논어』를 공자의 도덕·광휘를 형용한 저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20편 가운데 공자의 動靜言行에 대한 저술로만 이루어진 「향당」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또 그는 「향당」이 『논어』 가운데 위치하는 것에 대하여 “夫子の 도덕을 형용하여 上下의 周旋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前後의 禮樂德政이 「향당」에 형용되지 않음이 없고, 上下의 動靜言行이 또한 「향당」에 형용되지 않음이 없다.”<sup>84)</sup>라고 밝힘

8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二十之篇, 莫不體用於學而爲政之本原, 則其所門人之次篇, 其非吾夫子刪詩序書之體易者耶? 詩之三百篇, 莫非二南. 書之五十篇, 亦莫非二典也. 易之六十(四)卦, 都是乾坤之一様子, 則語之二十篇, 此實學而爲政之體用也.”

83)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門弟子形容, 夫子之道德, 而以學而爲首, 以爲政爲次, 則學而知也, 爲政仁也. 學之用施於爲政, 政之本在於學而, 則吾必曰學而爲政爲, 二十篇之綱領也. 禮樂詩書, 莫非知道命德性, 亦莫非仁, 則其所學政於不爲天地之大經大法耶?”

84)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謹述論語七篇, 而以鄉黨居中者, 形容夫子之道德, 以明上下之周旋也. 前後之禮樂德政, 莫非形容於鄉黨. 上下之動靜言行, 亦莫非形容於鄉黨.”

으로써 「향당」을 기점으로 앞뒤의 내용이 모두 「향당」에 나타나 있음을 드러냈다.

세 번째는 「요왈」을 堯舜으로부터 周公·孔子에 이르기까지 道傳을 밝힌 장으로 파악하였다. 공자의 기상은 앞선 성인을 이어받아 그 太和元氣가 四時에 행해진다 고 밝혀 공자가 요순으로부터 전해오던 道를 이어받았음을 강조하였다.<sup>85)</sup>

이러한 견해를 백봉래의 수제자인 謙窩 沈就濟(1752-1809)가 體用論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는데, 아래 인용문과 같다.

지금 『논어』한 부분인 「학이」를 첫 편으로 삼고 「향당」을 중간에 두고 「歷叙群聖」을 종편으로 삼았다. 「학이」는 마음의 全德을 배워서 밝힌 것이고, 「향당」은 마음의 全德을 편안히 하여 실천한 것이고, 歷叙는 마음의 全德을 전하여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一本이면서 萬殊인 것은 「학이」이고 萬殊이면서 一本인 것은 歷叙(요왈)이다. 「향당」 한 편은 一本을 세우고 萬殊를 통섭한다.<sup>86)</sup>

심취제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논어』 20편은 一本萬殊의 이치를 반영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에서 ‘一本’은 마음의 全德을 말한다는 것이다. 「학이」에서는 全德을 배운 것으로 앎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요왈」은 이 마음의 全德을 전수 받은 것으로 『논어』에 산발적으로 나타난 全德을 종합하여 공자의 道로 귀결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향당」은 중간에서 一本인 마음의 全德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동 즉 萬殊로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는 『논어』 전체 편에 대하여 요지를 파악하고 중요한 편을 꼽아 논어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였다. 「학이」와 「

85)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堯曰之終篇者, 歷叙羣聖以明道統之傳, 則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湯, 禹湯以是傳之文武, 文武以是傳之周公孔子者此也. 夫子之爲氣象, 卽太和元氣行於四時, 則自堯舜至周公孔子, 抑又非太和元氣行於四時者耶?”

86) 沈就濟, 『謙窩集』 卷2, 「論語說」, “今夫論語, 一部以學而爲首, 以鄉黨居中, 以歷叙羣聖, 爲篇終. 其學而者, 心之全德學, 而明之也. 其鄉黨者, 心之全德安, 而行之也. 其歷叙者, 心之全德傳, 而受之也. 然則 一本而萬殊者, 學而也. 萬殊而一本者, 歷叙也. 鄉黨一篇, 立一本, 統萬殊.”

위정」이 『논어』의 본원이 되어 綱領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과 「향당」을 『논어』의 주요로서 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요왈」에 대해 道傳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자의 언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뜻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백봉래의 도설을 전술한 김황의 「논어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도표의 형태면에서 김황의 논어도는 수직형태로 『논어』의 논리구조를 표현하였다면, 백봉래는 원형으로 전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직관적인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도표를 설명하는 설을 붙여 그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내용면으로 보았을 때 백봉래가 「학이」·「위정」을 『논어』의 본원으로 보고 「향당」이 추요가 되며 「요왈」을 통해 그 道傳을 밝혀 『논어』를 세 부분으로 나눈 반면, 김황은 「학이」와 「향당」, 「미자」·「자장」, 「요왈」 다섯 편을 꼽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그 구조를 파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당」이 그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내용의 분기점이 되거나, 또는 『논어』 전체의 주요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또 「요왈」을 道傳의 내용으로 보아 『논어』의 완결성을 더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논리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논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 시도로 그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특정 편 또는 장을 대상으로 하는 도에 관하여 살펴보자.

### 3. 편·장별 분석 도설

백봉래의 『논어』 도설 14개 가운데, 앞서 살펴본 「論語爲學之根本之圖」와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를 제외한 12개의 도설은 편·장별 요지를 파악한 도설과 핵심어 요지를 파악한 도설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지게 특정 편이나 장의 내용을 다룬 도설을 편·장별 분석 도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면 두 가지 도표를 통해 편·장별 내용과악의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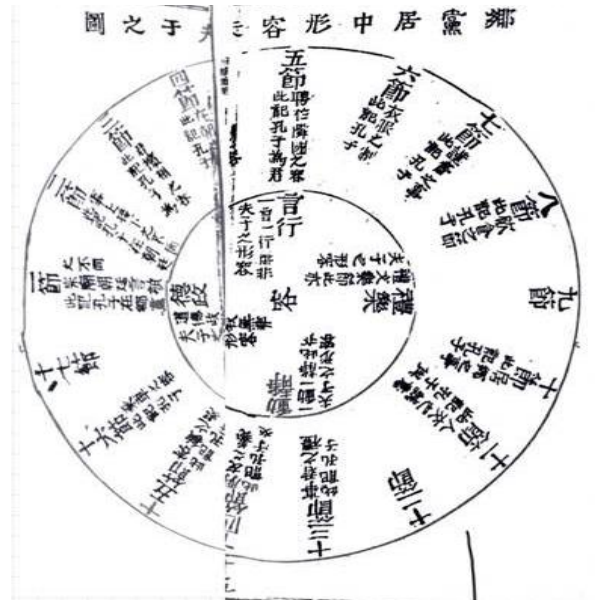


그림 2-3 백봉래의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

먼저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는 「향당」 한 편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전술하였듯이 「향당」을 공자의 언행을 형용하는 편으로서 『논어』의 논리 구조 속에서 樞要로 인식하는 견해에 의거하여 도표를 작성하였다.

우선 바깥 원에 「향당」 17절에 대한 요지를 약술하여 등글게 배열하였고, 안쪽 원에 공자의 용모를 뜻하는 용을 중심으로 사방에 「禮樂」·「德政」과 「動靜」·「言行」을 배치하였다. 이는 주자가 “「향당」에 「天命之謂性」으로부터 「道不可須臾離」까지가 모두 그 속(「향당」)에 들어있으며, 허다한 도리가 모두 성인의 몸으로부터 나왔으니 오직 성인만이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인들이 자세히 보아 상세히 기록하



였다.”<sup>87)</sup>라고 한 주석에 따르면, 주자는 『중용』 1장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中庸의도에 관한 내용이 『향당』에 실려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그는 『향당』에 실린 많은 도리가 공자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향당』에 공자의 禮樂德政과 動靜言行之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인식하였다.<sup>88)</sup>

그는 「향당」이 17절이 된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절은 대개 「文言」 6절의 뜻을 취한 것이다. 節節로 나누어 해석하고 章章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절 마다의 뜻을 거둬 밝히고 장 마다의 뜻을 거둬 밝힌 것이니 또 형용을 반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앞뒤를 둘러봄에 動靜의 형용이 아님이 없고, 좌우를 둘러 봄에도 言行之의 형용이 아닌 것이 없다. 말하자면, ‘천지와 덕을 같이 한다[與天地同德]’는 것이니 형용하는 것은 「향당」이고, 말하자면, ‘일월과 밝음이 부합한다[與日月合明]’는 것이니 모범이 되는 것 또한 「향당」이다. 四時가 어찌 감히 순서에 어긋나겠으며 鬼神이 어찌 감히 길흉에서 도망가겠는가? <sup>89)</sup>

그는 「향당」이 17절로 나누어진 것에 대하여 『주역』 「문언」 6節의 뜻을 취한 것이라 주장한다. 「문언」 6절에 ‘大人이란 天地와 그 德을 합하여 日月과 그 밝음이 합하며 四時와 그 차례가 합하며 鬼神과 그 길흉이 합한다.’<sup>90)</sup> 라고 한 부분을 들어 공자가 만물과 서로 감동하고 공자의 덕이 부합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비유하였

87) 『朱子語類』 卷38, 「論語二十」, “鄉黨一篇, 自天命之謂性, 至道不可須臾離, 皆在裏面, 許多道理, 皆自聖人身上迸出來. 惟聖人, 做得甚分曉. 故門人見之熟, 是以記之詳.”

8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前後之禮樂德政, 莫非形容於鄉黨. 上下之動靜言行, 亦莫非形容於鄉黨.”

89)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分爲十七節者, 蓋取諸易文言六節之義也. 節節分解, 章章分析, 而申明節節之義, 再申明章章之義者. 抑又非反覆形容耶? 瞻前顧後, 無非動靜之形容, 左準右規, 亦無非言行之形容也. 旣曰與天地同德, 則形容者鄉黨. 旣曰與日月合明, 則模範者亦鄉黨也. 四時安敢錯其序, 鬼神安敢逃其吉凶耶?”

90) 『周易』 卷1, 「文言專」,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

다.91) 이러한 견해는 「향당」 전체 구절마다 공자의 動靜言行이 만물의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을 반복하여 형용하고 거듭 밝히기 위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 도표에서 17절에 대하여 주자가 파악한 大旨을 약술하여 실어 놓되, 설에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놓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節	大旨	定義
1	此記孔子在鄉黨宗廟朝廷言貌之不同	節以合禮
2	此記孔子在朝廷事上接下之不同	節以均禮
3	此記孔子爲君擯相之容	容恭
4	此記孔子在朝之容	容敬
5	此記孔子爲君聘於隣國之容	容肅
6	此記孔子衣服之制	色容莊
7	此記孔子謹製之事	誠
8	此記孔子飲食之節	慎
9	.	.
10	此記孔子居鄉之事	敬
11	此記孔子與人交之誠意	忠
12	.	.
13	此記孔子事君之禮	分
14	此記孔子交朋友之義	信
15	此記孔子容貌之變	正色
16	此記孔子乘車之容	謹
17	.	.

표 2-1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의 대지파악 및 정의

위의 표는 백봉래가 파악한 향당 17절의 大旨와 자신만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백봉래가 파악한 대지를 살펴보면 주자가 파악한 것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도표를 설명한 설에는 각 절마다 자신만의 정의를 덧붙여 공자의 각 절에 나타난 언행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예컨대 「향당」 2절92)에 주자의 주석이 훈고와 상황에 대한 설명에 그친 반면 백봉래는 예

91) 『周易正義』卷1, 「乾傳」, “但上節, 明大人與萬物相感, 此論大人之德无所不合, 廣言所合之事”.

를 균평하게 한다[均禮]는 의미로 보았다. 또 13절<sup>93)</sup>을 아우르는 의미를 각 상황을 구별하는 의미[分]로 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향당」을 『논어』의 추요로 인식하여 각 절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깊게 사유한 결과이다.

또 도표에 주자의 언급이 없는 9절·12절·17절에 해당하는 대지는 비워놓았는데, 이는 따로 설을 통해 언급하였다. 9절<sup>94)</sup>은 8절<sup>95)</sup>의 내용을 이어받는다고 하였으며, 12절<sup>96)</sup> 또한 13절의 구분하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sup>97)</sup> 또 17절<sup>98)</sup>에 대해서는 주자의 闕文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며<sup>99)</sup> 14절<sup>100)</sup>의 내용과 뜻 통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였다.<sup>101)</sup>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향당」은 공자의 형용을 드러낸 것으로 공자의 禮樂德政과 動靜言行을 모두 담고 있기에 『논어』의 추요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향당」의 17절은 『주역』 「문언」 6절의 뜻을 취하여 17절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셋째, 주자의 大旨를 따르되 본인의 견해를 붙여놓았으며, 주자가 언급하지 않은 9·12·17절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언급하였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92) 『論語』 「鄉黨」 2節, “朝與下大夫言 侃侃如也 與上大夫言 誾誾如也 君在 蹻蹻如也 與與如也”

93) 『論語』 「鄉黨」 13節, “君賜食 必正席先嘗之 君賜腥 必熟而薦之 君賜生 必畜之. 侍食於君 君祭 先飯. 疾君視之 東首 加朝服拖紳. 君命召 不俟駕行矣. 入太廟 每事問”

94) 『論語』 「鄉黨」 9節, “席不正, 不坐.”

95) 『論語』 「鄉黨」 8節, “食不厭精, 膾不厭細, 食饅而餲, 魚餒而肉敗, 不食, 色惡不食, 臭惡不食, 失飪不食, 不時不食, 割不正不食, 不得其醬不食, 肉雖多, 不使勝食氣, 唯酒無量, 不及亂, 沽酒市脯, 不食, 不撤薑食, 不多食, 祭於公, 不宿肉, 祭肉, 不出三日, 出三日, 不食之矣. 食不語, 寢不. 雖疏食菜羹, 瓜祭, 必齊如也.”

96) 『論語』 「鄉黨」 12節, “廐焚,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

97)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至若九節十二節之無節者, 其或承上文, 而然歟, 聯下節, 而然歟.”

98) 『論語』 「鄉黨」 17節, “色斯學矣, 翔而後集. 曰山梁雌雉, 時哉時哉. 子路共之, 三嗅而作.”

99) 『論語集註』 「鄉黨」 17節. “言鳥見人之顏色不善, 則飛去, 回翔審視而後, 下止, 人之見幾而作, 審擇所處, 亦當如此. 然此上下, 必有闕文矣.”

100) 『論語』 「鄉黨」 14節, “朋友死, 無所歸, 曰於我殯, 朋友之饋, 雖車馬, 非祭肉, 不拜.”

101)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色斯一章, 其或節之餘韻耶? 篇下即記十七節, 而分言節者, 不過十四節也.”

또 그는 특정 장에 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아래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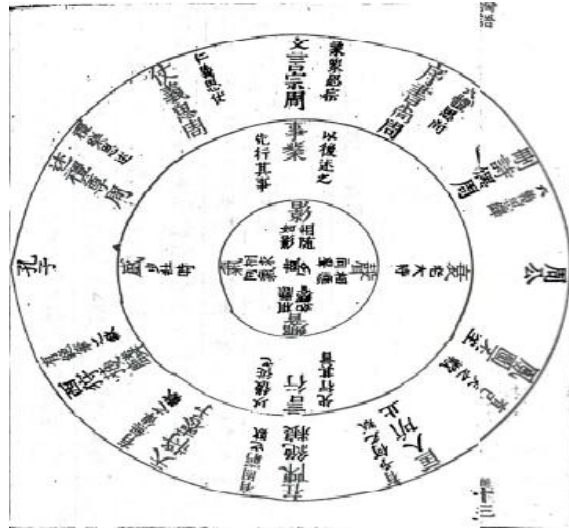


그림 2-4 백봉래의 「歎不復夢見周公之圖」

「述而」 5장<sup>102)</sup>의 내용을 다룬 「歎不復夢見周公之圖」는 백봉래는 주자가 “공자가 젊었을 때 마음으로 周公의 道를 행하고자 하였다.”<sup>103)</sup>라고 언급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도표를 제작하였다.

가장 안쪽 원에 이 장의 주제어인 ‘夢’을 중심에 두고 ‘影’·‘響’·‘氣’·‘聲’을 배치하였다. 그는 주공과 공자의 시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影之隨形], 메아리가 소리에 응답하는 것[響之應聲], 같은 기운이 서로를 추구하는 것[同氣之相求], 같은 소리가 서로 응답하는 것[同聲之相應]과 같다’고<sup>104)</sup> 언급하면서

102) 『論語』 「述而」 5章, “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103) 『論語集註』 「述而」 5章. “孔子盛時, 志欲行周公之道.”

104)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周公之言行, 孔子而後從之, 周公之事業, 孔子而後述之, 則世雖相後, 得志行于中國, 則若影之隨形, 響之應聲也. 地雖相遠, 傳道行于天下, 則如同氣之相求, 同聲之相應也.”

이는 공자와 주공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공자가 주공을 계승하였음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도표의 중간 원에 事業·言行을 배치하여 공자가 장성한 때에 주공의 사업을 조술하고 언행을 따른 것을 나타내었다.

가장 바깥 원의 상단에는 공자가 젊고 장성한 때에 주공 계승하여 실천한 5가지 항목을 배열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우리 부자께서 바야흐로 젊고 장성한 때에 주공의 사업[事]을 행하고자 하였고 주공의 업적[業]을 조술하고자 하셨으며, 주공의 말[言]을 말씀하셨고, 주공의 행실[行]을 실천하셨다. 그러므로 寤寐 사이에 부지런히 힘쓰기를 주공이 위에 계신 듯이 하셨으며 엄숙하게 하기를 주공이 가까이 계신 듯이 하셨다. 잠들기 전과 잠이 깬 후는 그리워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며,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고 하루도 꿈에 나오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 ‘禮’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술하고, 그 ‘義’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높이고, 그 理를 생각하면서 말을 드러내고, 그 ‘體’를 생각하면서 『書經』을 차서하고, 그 ‘誠’을 생각하면서 『詩經』을 산삭한 것은 바로 젊고 장성한 때에 주공의 일을 행하고자 한 것이다.<sup>105)</sup>

먼저 공자는 주공을 늘 생각하여 寤寐의 사이에도 주공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음을 드러내면서 공자가 젊고 기운이 있을 적에 의지와 생각이 주공의 道를 실천하려 했음을 밝힌 것을 밝혔다.<sup>106)</sup> 이어서 주공의 사업과 언행을 이어받아 실천한 것들을 나열하였는데, 『詩』와 『書』를 刪削하고, 『周易』을 贊述하고 『春秋』를 編修하는 등 모두 前聖의 옛것을 전술하는 것과 같은 일임을 드러냈다.<sup>107)</sup> 이와 같은 내용

105)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吾夫子方其少壯之時, 欲行周公之事, 欲述周公之業, 而言周公之言, 行周公之行. 故寤寐之間翼翼乎如周公之在上, 轉側之際, 儼儼乎如周公之甚邇也. 寐之在前, 寤之在後, 則思服繹思之日, 無一日不思, 無一日不夢也. 思其禮而述之, 思其義而尊之, 思其理而文言, 思其體而序書, 思其誠而刪詩者, 此正少壯之時, 欲行周公之事也.”

106) 『論語集註』 「述而」 5章, “程子曰 孔子盛時, 寤寐常存行周公之道, 及其老也, 則志慮衰而不可以有爲矣.”

107) 『論語集註』 「述而」 1章, “孔子刪詩書, 定禮樂, 贊周易, 修春秋, 皆傳先王之舊, 而未嘗有所作也.”

을 도표에 ‘述禮尊周’·‘仗義思周’·‘文言宗周’·‘序書尙周’·‘刪詩繹周’ 5가지 항목으로 나타내었다.

이어서 그는 공자의 꿈에 더이상 주공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아래의 인용문에 자세히 나타난다.

한번 鳳凰과 河圖가 이르지 않은 이후로부터 匡人에게 저지당하고, 陳에서 식량이 바닥났으며, 또 顏回의 죽음에 통곡하였으니 기린이 잡힌 날에 절필하였다. 어찌 주공의 꿈이 내 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생각하겠는가? ‘내 道가 끝났구나[吾道已矣]’라고 한 밤에 주공을 그리워함이 조금 게을렀던 것이고, ‘나를 어찌하겠는가[其於予何]’라고 한 날에 주공을 그리워함이 점차 쇠퇴하였고, ‘본래 곤궁하다[困窮]’라고 한 저녁에 주공을 그리워한 생각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하늘이 버리셨다[天喪]’라고 탄식한 때에는 주공을 그리워한 생각이 어떠하였는가? 기린이 잡힌 날[獲麟]은 주공을 그리워한 생각이 거의 끊어짐에 가까웠으니, 꿈이 盛衰에 따라 꿈을 꾸고 꾸지 않음을 어찌하겠는가? 반드시 行止에 따라 꿈꾸고 꿈꾸지 않는 것이다.<sup>108)</sup>

백봉래는 공자가 곤경을 겪을 때마다 주공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쇠퇴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공자가 ‘西狩獲麟’한 때에 이르러서는 주공의 道를 계승하는 사업으로서 『춘추』를 편수하는 일을 놓음으로써 자신이 도가 행해지지 않을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두고 백봉래는 주공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거의 끊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주자가 戴少望의 말을 빌려 언급한 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戴少望이 말하기를 “안연의 죽음은 성인이 人事에서 관찰하신 것이고, 鳳凰이

10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一自鳳圖不至之後, 爲匡人所止, 而在陳絕糧, 又哭顏回, 則絕筆獲麟之日. 夫何思周之夢不復入我夢乎. 吾道已矣之夜, 思周之念少弛矣, 其於予何之日, 思周之念漸衰矣, 固窮之夕, 思周之念幾希矣, 天喪之歎, 思周之念如何. 獲麟之辰, 思周之念幾於望斷. 如之何一夢從盛衰, 而夢不夢, 必也一夢隨行止, 而夢不夢也.”

이르지 않고 河圖가 나오지 않은 것은 성인이 千里에서 살핀 것이고, 주공을 꿈꾸지 못한 것은 聖人이 자신의 몸에서 체험한 것이다. 그런 후에 이 道가 과연 행해지지 않고, 하늘이 과연 이 세상에 뜻이 없음을 아셨다.”라고 하였는데, 이 뜻 또한 좋다.<sup>109)</sup>

이는 ‘鳳圖不至’·‘天將喪予’·‘西狩獲麟’와 같은 일을 통해 하늘이 세상에 道를 행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공자가 이러한 일을 직접 체험하여 하늘이 세상에 道가 행해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설명한 것이다. 백봉래는 이 견해에 동의하여 위에서 언급한 ‘鳳圖不至’·‘天將喪予’·‘西狩獲麟’에다가 ‘匡人所止’·‘在陳絕糧’ 2가지 일을 더하여 5가지 일을 배열함으로써 세상이 쇠퇴한 일을 밝혔다.<sup>110)</sup>

또 백봉래는 주공을 꿈꾸고 꾸지 않는 원인이 ‘盛衰’와 ‘行止’ 2가지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sup>111)</sup> 주자가 “늙어서 행할 수 없음에 이르게 되자, 이런 마음이 다시 없게 되었고 이러한 꿈도 다시 꾸지 않았다.”<sup>112)</sup>라고 한 것과 정자가 “늙음에 이르러서는 의지와 생각이 쇠하여 어찌할 수가 없었다. 대개 道를 보존하는 것은 마음이니 老小의 차이가 없지만, 道를 행하는 것은 몸이니 늙으면 쇠퇴한다.”<sup>113)</sup>라는 견해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백봉래는 ‘道가 행해지지 않을 조짐’에 주목하여 공자의 마음이 쇠퇴한 것에 무게를 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자로 하여금 실천에 이르지 못하게 하여 더이상 주공의 꿈을 꾸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109) 『朱子語類』 卷34, 「論語十六」, “戴少望謂 顏淵子路死, 聖人觀之人事, 鳳鳥不至, 河不出圖, 聖人察之天理, 不復夢見周公, 聖人驗之吾身, 夫然後知斯道之果不可行, 而天之果無意於斯世也. 曰這意思也發得好.”(이에 관해서는 김동인의 2명(2010), 『(세주완역) 論語集註大全: 동양철학의 향연』Vol.2, 과주: 한울 번역 참고.)

110) 『朱子語類』 卷34, 「論語十六」, “問 甚矣吾衰也. 曰 不是孔子衰, 是時世衰.”

111)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獲麟之辰, 思周之念幾於望斷. 如之何一夢從盛衰, 而夢不夢, 必也一夢隨行止, 而夢不夢也.”

112) 『論語集註』 「述而」 5章, “至其老而不能行也, 則無復是心, 而亦無復是夢矣. 故因此而自歎其衰之甚也.”

113) 『論語集註』 「述而」 5章, “程子曰 孔子盛時, 寤寐常存行周公之道. 及其老也, 則志慮衰而不可以有爲矣. 蓋存道者心, 無老少之異, 而行道者身, 老則衰也.”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백봉래의 편·장별 분석은 모두 『논어집주』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특정 편에 대한 도설의 경우, 『논어』의 樞要로서 「향당」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를 그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공자의 動靜言行을 통해 禮樂德政이 드러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향당」 각 절에 대해 모두 요지를 파악하였다. 또 주자의 언급이 없는 세 절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여 「향당」 17절 모두 공자의 언행을 형용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견지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장에 관한 도설인 「歎不復夢見周公之圖」는 해당 장의 내용을 다루되, 공자가 주공을 계승한 것과 주공의 꿈을 꾸지 못한 원인에 대한 논의를 여러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이는 『논어집주』의 程朱의 주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이를 종합하여 여러 사례를 덧붙여 보충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사례 모두 해당 편·장의 내용에서보다 확장된 논의를 이끌어내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핵심어 ‘一貫’ 분석 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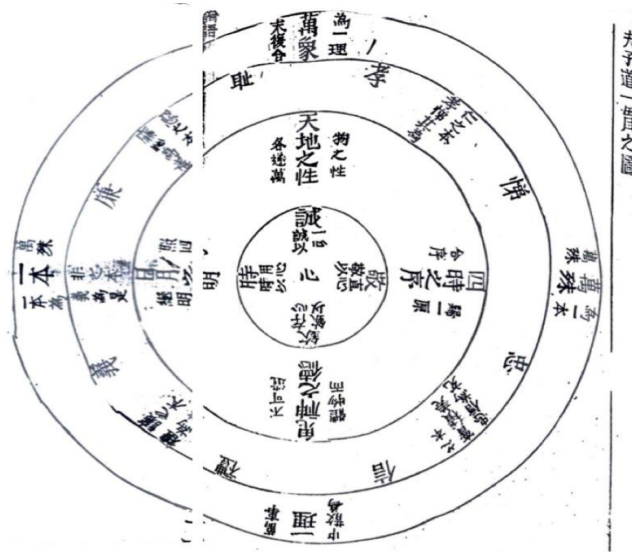


그림 2-5 백봉래의「夫子一貫之圖」

백봉래의 「夫子道一貫之圖」는 앞의 장에서 다루었던 김휴의 「吾道一貫章圖」와 같은 「里仁」 15장<sup>114)</sup>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김휴의 「오도일관장도」는 해당 장에 관하여 경문과 『논어집주』의 주석을 따라 해당 장 전체를 도표로 그렸다면 백봉래의 「부자도일관지도」는 ‘一以貫之’을 중심에 두고서 도표를 그렸다. 이에 본절에서는 이 도설을 핵심주제어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朱夫子께서 말하기를 “一’은 ‘心’이고, ‘貫’은 萬事이다.”라고 하셨으니 적당하고 긴요한 부분이다. …… 이 글의 ‘吾道’는 堯舜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진실로 그 中道를 잡아라’은 堯가 舜에게 전해준 心法이다.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미미하니 오직 정밀하고 일관되게 하여 그 中道를 잡아야 한다’는 舜이 禹에게 전수한 心法이다. 禹가 이것을 湯에게 전했고 湯이 이것을 文武·周公·孔子에게 전하였다. 그러

114) 『論語』 「里仁」 15章, “子曰 參乎。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니 『中庸』과 『大學』의 大義微旨은 이런 마음의 오묘함을 지니고 있지 않음이 없다. 『易』復卦에 ‘그 천지의 마음을 본다’라고 한 것은 時로써 이 마음을 보존한 것이고, 『書』의 ‘允執厥中’은 欽으로 이 마음을 보존한 것이고, 『詩』에 ‘思毋邪’는 誠으로써 이 마음을 보존한 것이고, 『대학』의 ‘敬其止’는 敬으로 이 마음을 보존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한 몸의 주인이 되고 만사에 응하여 하나로 켜다. 마음을 보존하면 天地의 性과 鬼神의 德이 영향을 끼치지 않음이 없고, 마음이 보존하지 않으면 日月의 明과 四時의 序 또한 鑿戾하지 않음이 없다. 一理萬殊의 사이에 ‘一’은 곧 마음으로 관통한 것이고 一本萬殊 사이에 ‘一’은 곧 마음으로 켜 것이다.<sup>115)</sup>

백봉래는 ‘一貫’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주자의 견해와 같이 ‘一’을 ‘心’으로, ‘貫’을 ‘萬殊’로 보았다. ‘一以貫之’의 핵심을 ‘心’으로 파악하여 도표의 가장 중심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心’ 주변을 時·欽·誠·敬이 둘러싸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이 4가지는 요순으로부터 공자까지 전수되어 온 心法임을 밝히며 이는 곧 공자가 ‘吾道’라고 일컫는 공자의 道라는 것을 드러냈다.

한편, 이 4가지 心法은 각각 『주역』·『서경』·『시경』·『대학』을 통해 전수되었는데, 이 들은 각각 時는 마음을 때에 맞게 쓰도록 하고[用心], 欽은 마음을 보존하게 하고[存心], 誠은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一心], 敬은 마음을 곧게 하여[直心]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본연의 마음을 보존해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보존된 마음은 두 번째 원의 天地之性·鬼神之德·日月之明·四時之序 즉 ‘萬象’에 영향을 주어 ‘一理’에서 ‘萬象’이 되는 이치를 밝혔다. 또 行仁·存信의 단서가 되는 孝弟忠信과 辭讓과 是非之心의 단서가 되는 禮義廉恥 즉, 一理인 마음이 萬殊인 孝·弟·忠·信·禮·義·廉·恥에 이르게 됨을 세 번째 원을 통해 드러내었다.

115)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朱夫子曰 一者心也, 貫者萬事也云爾, 則此是當喫緊處也. …… 斯文, 吾道自堯舜始, 則允執厥中者, 堯所以授舜之心法也.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者, 舜所以授禹之心法也.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周公孔子, 則庸學之大義微旨, 無非存此心之妙也. 易之復曰 其見天地之心, 則時以存此心也, 書之允執厥中, 則欽以存此心也, 詩之思無邪, 則誠以存此心也, 學之敬厥止, 則敬以存此心. 故心爲一身之主, 應萬事而一串也. 心存則天地之性鬼神之德, 莫不影響矣. 心不存則日月之明四時之序, 亦莫不鑿戾矣. 一理萬象之際, 一乃心以貫之, 一本萬殊之間, 一乃心以串之.”

네 번째 원에는 『중용』 首章의 一理-萬象,<sup>116)</sup> 『주역』 一本-萬殊를 배치하여 ‘一貫’의 오묘함을 드러냈다. 이에 ‘一’은 ‘一理’ 또는 ‘一本’으로 堯舜부터 내려온 心法을 뜻하며, ‘貫’은 ‘萬象’ 또는 ‘萬殊’로 ‘孝·弟·忠·信·禮·義·廉·恥’와 같은 다양한 덕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이 도표는 ‘一以貫之’가 ‘一本萬殊’를 뜻하는 것을 중점으로 드러내는 도표이다. 이 도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一理’와 ‘一本’은 ‘吾道’를 말하는 것으로, 堯舜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心法이 세상의 여러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모습의 덕목으로 나누어 지지만, 그 근본은 같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공자의 道에 대하여 설명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백봉래의 도설을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1절에서 「論語爲學之根本之圖」를 통해 백봉래가 파악한 논어인식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그는 도표를 통해 논어 전체는 인의예지와 도명덕성에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각각 사본과 사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사본과 사덕에 근거하여 힘쓰면 오류로 확장된다는 것을 예로 들어 논어 전편이 무분의 뜻임을 밝혔다. 이는 논어 전체의 내용과 요지를 파악한 도설로 제2장 1절에서 살펴본 전도유형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절에서는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를 통해 논어의 주요 4편을 꼽아 3단계의 논리적 구조를 밝혔다. 특이하게도 학이와 위정을 20편의 본원으로 삼는다는 점과 향당을 논어의 추요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과 마지막 요왈을 통해 공자도의 근원가 도통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 도설은 제2장 2절의 분절도 유형에서 살펴본 것처럼 논어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3절에서는 논어의 특정 편·장을 분석한 도설로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와 「歎不

116) 『中庸章句』 1章, “書始言一理, 中散爲萬事, 末復合爲一理, 放之則彌六合, 卷之則退藏於密, 其味無窮, 皆實學也.”

復夢見周公之圖」를 살펴보았다. 전자는 「향당」이 논어의 주요로서 공자의 動靜言行을 형용하는 편으로 인식하여 「향당」을 강조하였다. 주자의 견해를 근간으로 하되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하여 논의를 이끌었다. 또 후자는 논어의 특정 장을 다루면서 경문과 주석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되 논점에 대하여 자신이 파악한 사례를 덧붙여 보충하였다. 이 두 도설은 논어집주를 근간으로 확장된 논의를 이끌어 낸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4절에서는 핵심어 ‘一貫’을 분석하는 「夫子一貫之圖」를 분석하였다. 백봉래는 이 도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一理’와 ‘一本’은 ‘吾道’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堯舜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心法이 세상의 여러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모습의 덕목으로 나누어 지지만 그 근본은 같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공자의 道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백봉래 『논어』 도설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14개의 도는 그 내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선 『논어』 도설의 유형과 다르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논어』를 도표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서의 개념을 인용하여 배열하였으며 『논어』 안에서도 관련된 개념을 매치함으로써 논의를 확장하였다. 셋째, 백봉래의 『논어』 도설은 전체를 다루는 도설에서부터 편·장을 거쳐, 핵심어를 다루는 도설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논어』를 탐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가 경전에 대해 경문에서 주석까지 면밀하게 연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저술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제4장 백봉래 『논어』 해석의 특징

### 1. 以經證經·以經通經

백봉래는 四書三經 체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四書의 근거는 三經이고, 그 중의 『詩經』·『書經』은 『周易』을 體로 삼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四書三經은 『주역』의 이치에 일관되는 유기적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경학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117)</sup> 이러한 견해는 『논어』를 해석방식으로 드러냈는데, 『논어』를 해석함에 있어 『대학』·『중용』·『주역』·『서경』·『시경』과 같은 경서류를 다수 인용하는 ‘以經證經’ 과 ‘以經通經’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논어』를 도해하는 과정에서도 도표에 다른 경서의 개념을 빌려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본질에서는 백봉래 『논어』해석 방식을 ‘이경증경’과 ‘이경통경’으로 나누어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경증경의 사례부터 살펴보겠다.

아! 『시경』의 關雎는 『주역』의 乾坤과 같다. 그러니 『주역』의 乾坤은 父子의 綱이며, 『서경』의 乾坤은 君臣의 綱이며, 『시경』의 乾坤은 夫婦의 綱이다. 君子의 道는 夫婦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夫婦가 있게 된 후에 父子가 있고, 父子가 있게 된 후에 君臣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三綱이다. 우리 부자께서 詩를 산삭하고 書를 차서하신 것은 易의 乾坤을 본체로 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 乾坤이 열을 이루자, 『易』이 그 가운데에 확립되고, 二典이 六體를 바로잡자, 각각 그 바름을 얻고, 關雎가 六義를 바로잡자, 전부 그 법칙을 얻은 것은 또한 三經의 體要이다.<sup>118)</sup>

117) 문창호(2017), 위의 논문, p.83.

11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吁. 詩之關雎, 如易之有乾坤, 則易之乾坤, 父子之綱也. 書之乾坤, 君臣之綱也. 詩之乾坤, 夫婦之綱也.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故有夫婦, 然後有父子, 有父子, 然後有君臣者,

그는 『논어』 「팔일」 20장<sup>119)</sup>의 ‘關雎’를 설명하면서 『주역』의 乾·坤을 들어 설명한다. 먼저, 『시경』의 關雎와 『주역』의 乾坤을 등가로 놓았는데, 이는 「序卦傳」에 “천지가 있게 된 다음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게 된 다음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게 된 다음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게 된 다음에 모든 인간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20)</sup> 이를 바탕으로 三經을 각각 父子·君臣·夫婦의 기강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곧 三綱의 법칙이 됨을 밝혔다.

또 『주역』이 『시경』·『서경』의 本體가 된다는 그의 견해에 따라,<sup>121)</sup> 『주역』-乾坤, 『서경』-二典, 『시경』-二南이라는 공식에서 ‘二南’ 대신 『시경』-關雎로 대입함으로써 「周南」과 「召南」을 전체를 아우르는 시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서 ‘關雎’라는 한 편의 시를 『시경』의 體인 二南에 대입함으로써 세상의 이치가 夫婦의 조화 즉 ‘關雎’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백봉래가 關雎의 개념을 삼경령의 시작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주역』의 乾·坤卦를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는 「克己復禮爲仁體用之圖」에서 ‘仁’을 ‘未然之仁’과 ‘已然之仁’ 등 4가지로 풀면서 『주역』의 剝卦와 復卦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仁에는 渾然之仁이 있으며, 또 生物之仁이 있다. 그러니 渾然之仁은 天地渾然의 體이고, 生物之仁은 天地生物의 用이다. 已然之仁은 剝卦의 ‘碩果’이며, 未然之仁 역시 復卦의 ‘天’이다. 碩果가 생겨나고 생겨나서 이치가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渾然한 가운데 生物之仁을 孕育한 것이고, 未然한 가운데 已然之仁을 存養하는

此正三綱也。吾夫子刪詩序書，無非體易之乾坤，則乾坤成列，易立乎其中，二典提綱六體，各得其正，關雎挈領六義，咸取其則者，此亦三經之體要也”

119) 『論語』 「八佾」 20章,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120) 『周易』 「說卦傳」,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이에 대해서는 한국고전번역원DB의 번역 참조.)

121)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4, 「三經通義-詩經」, “體易之謂詩書, 則書之六體, 詩之六義, 無非體易之六節者也.”

것이니 하나의 理가 아님이 없고, 또 하나의 仁이 아님이 없다.<sup>122)</sup>

먼저 그는 仁을 渾然之仁과 生物之仁, 未然之仁과 已然之仁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渾然之仁은 天地渾然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生物之仁은 天地生物의 작용을 말한다. 또 已然之仁을 「剝卦」의 ‘碩果’라고 언급하였는데, 『주역』 「박괘」에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 [碩果不食]”를 말한 것이다.<sup>123)</sup> 이는 아래의 다섯 개 효가 모두 陰인 상태에서 맨 위의 한 효만 陽인 것을 ‘碩果’로 비유한 것으로, 陽이 곧 없어져 陰이 될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sup>124)</sup>

未然之仁은 復卦의 ‘天’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復卦의 “天地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sup>125)</sup>라고 한 것으로, 앞의 剝卦를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復卦가 되어 다시 양이 아래에서 차오르는 형상을 보여준다. 이는 천지가 사물을 낳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sup>126)</sup>

이는 渾然한 가운데[體] 生物의 仁[用]을 함육하는 것이고, 未然한 가운데[復] 已然의 仁[剝]을 존양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두 하나의 理와 하나의 仁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仁의 속성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仁은 體用的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다시 剝卦가 변하여 復卦가 된 것처럼 끝과 시작이 맞물려 있음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주역』의 원리가 三經을 비롯한 四書도 관통하고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논어』를 해석하였다. 원래 ‘이경증경’의 해석방식은 주자의 주석과 다른 점이 있을 때에 자신의 경설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적용되었

12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仁有渾然之仁, 亦有生物之仁, 則渾然之仁, 卽天地渾然之體也. 生物之仁, 卽天地生物之用也. 至若已然之仁, 卽剝之碩果也. 未然之仁, 亦復之天心也. 碩果之生生, 一理不遠而復, 則渾然之中, 含有生物之仁, 未然之中, 存養已然之仁者, 無非一理, 亦無非一仁也.”

123) 『周易』 「剝卦」, “上九, 碩果不食, 君子, 得輿, 小人, 剝廬.”

124) 한국주역대전편찬실(2017), 『한국주역대전』 Vol. 5, 고양: 학고방, pp. 739.

125) 『周易』 「復卦」, “復, 其見天地之心乎.”

126) 한국주역대전편찬실(2017), 『한국주역대전』 Vol. 6, 고양: 학고방, pp. 46.

다.<sup>127)</sup> 하지만 백봉래의 ‘이경증경’ 방식은 주자학에 기반을 둔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형태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백봉래는 『논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以經通經의 방식을 취하여, 經과 經의 의미를 서로 소통시켰다.<sup>128)</sup> 이는 백봉래의 저술 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경통경의 방식을 취하여 단편적인 『논어』 서술의 특성을 극복하고 일관된 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당시 임금이 政事를 묻고, 제자들이 政事를 물은 것이 적지는 않으나, 오직 顔子에게 이 4가지 節을 알려준 것은 아마도 哀公이 政事를 물은 것과 같으니 『중용』에서는 九經에 그 항목이 상세히 드러나 있고, 『논어』에는 四節에 그 강령이 차례로 적혀있다.<sup>129)</sup>

위의 인용문은 「衛靈公」 10장<sup>130)</sup>을 해석함에 있어 『中庸』 20장<sup>131)</sup>을 연관시켜 풀이한 것이다. 공자가 안연에게 四節을 알려준 것과 哀公에게 九經을 일러 준 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여겨 대응시킨 것이다. 공자는 안연을 왕을 보좌할 인재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爲邦’의 절목인 四節을 일러준 것이다.<sup>132)</sup> 또 애공은魯나라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sup>133)</sup> 임금으로서 지켜야 할 조

127) 이영호(1999), 「17世紀 朝鮮 學者들의 『大學』解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5.

128) 김채리(2016), 「碩齋 尹行恂의 『論語隨筆』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7.

129)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時君之問政, 諸子之問政, 不爲不多, 而惟以告顔子之此四節者, 盖如哀公之問政, 則庸之九經詳言其目也, 語之四節歷言其綱也.”

130) 『論語』 「衛靈公」 10章, “顔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131) 『中庸章句』 20章, “哀公 問政, 子曰 …… 凡爲天下國家, 有九經曰, 修身也, 尊賢也, 親親也, 敬大臣也, 體群臣也, 子庶民也, 來百, 工也, 柔遠人也, 懷諸侯也.”

132) 『論語』 「衛靈公」 10章, “顔子, 王佐之才. 故問治天下之道, 曰爲邦者, 謙辭.”

133) 『中庸章句』 20章, “哀公, 魯君, 名蔣.”



목을 설명한 것으로, ‘修身’으로부터 ‘懷諸侯’까지 국가를 다스리는 9가지 법칙[九經]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백봉래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써 爲政者가 가져야 할 태도와 본받아야 할 先王의 법도를 『논어』와 『중용』의 경문을 가지고 와 설명한 것이다.

부자께서 이른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확고해졌고, 40세에 미혹되지 않았으며, 50세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세에는 귀로 들으면 이해되었고,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가는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라고 하셨으니 心으로 이 학문을 관통한 것이고, “詩에 흥기하고, 仁을 떠나지 않으며, 德을 지키고, 藝에 노닐며, 樂에서 완성한다.”라는 것은 心으로 이 道를 관통한 것이다.<sup>134)</sup>

위 인용문은 一以貫之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꿰뚫는가?’하는 물음에 『논어』의 경문을 인용하여 대답한 것이다. 그는 ‘一’에 해당하는 것을 堯舜으로부터 내려오는 心法 즉, 마음이라고 여겼다. 그는 「위정」의 4장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는데,<sup>135)</sup>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大學의 道’ 즉, 聖人이 되는 학문을 말한다. 또 이 장은 공자는 평생을 성인이 되는 학문에 매진하였음을 밝혔는데, 백봉래가 이 점에 착안하여 心法을 가지고 성인이 되는 공부하는 데에 적용하였음을 밝혔다.

또, ‘興於詩’부터는 「泰伯」 8장<sup>136)</sup>과 「述而」 6장<sup>137)</sup>을 합쳐 놓은 구절로, 자신의 관점을 서술하기 위해 임의로 경문의 내용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태백」 8장에 해당하는 ‘興於詩’·‘成於樂’은 정자가 “천하의 영재는 적지 않지만 다만 道學에는 밝지 않기 때문에 성취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라고 해석한 것에 기반하여, 이 전체

134)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夫子所謂十五而志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則心以貫此學也. 興於詩, 依於仁, 據於德, 遊於藝, 成於樂. 則心以貫此道也.”

135) 『論語』 「爲政」 4章,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136) 『論語』 「泰伯」 8章,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137) 『論語』 「述而」 6章,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

를 道學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았다. 또 「술이」 6장의 ‘依於仁’ ‘據於德’ ‘遊於藝’ 역시 백봉래는 道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요순으로부터 전수된 心法를 학문과 도학을 모두 꿰뚫는 하나의 이치로 보아 ‘一以貫之’를 설명한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백봉래는 『논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경증경’ ‘이경통경’의 방식을 채택하여 본인의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백봉래는 ‘이경증경’ 방식을 통해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이경통경’의 방법을 통해 단편적 서술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논어』를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백봉래가 『논어』 14도를 저술한 그 차서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吾道一以貫之’의 차서

백봉래는 四書三經 관련 도설을 저술하여 자신의 학문을 구축하였다. 그의 서술은 『시경』과 『서경』의 체제가 易理를 따라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sup>138)</sup> 四書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이 드러난다.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아! 전후 聖人の 經傳의 뜻이여! 복희·문왕의 『주역』은 2권의 經이 되고, 공자의 傳은 10권이 된다. 堯舜의 二典은 經이 되는데 공자의 傳은 58편을 저술하였고, 文王의 二南은 經이 되는데 공자의 傳은 300편으로 刪削하였으니, 堯·舜·禹·湯·文·武王은 經이고 『시경』·『서경』·『주역』은 傳이다. 그렇다면 傳은 經을 풀이한 말이다. 『시경』·『서경』은 『주역』을 본뜨지 않음이 없으니 공자가 傳을 지은 것은 經을 풀이한 뜻이 아니겠는가? 『대학』의 傳에 대해 이 또한 經을 풀이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서인가? 『주역』은 經이 2권이고 傳이 10권이니 『대학』의 經1章과 傳10章은 『주역

138) 이병찬(2005), 「白鳳來 詩經論의 編輯批評의 性格 研究」, 『어문연구』 Vol. 48, 어문연구학회, pp.199-201.

』을 본떠 『시경』·『서경』의 體用을 밝힌 것이 아니겠는가?139)

백봉래는 『주역』이 上經과 下經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대하여 공자가 十翼을 지은 것을 전이라 설명하였다. 이를 四書의 규모를 담당하는 『대학』의 편제와 관련지어 그 차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한편 앞서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에서 『논어』 역시 위와 같은 견해를 적용하여 「學而」와 「爲政」이 나머지 18편의 綱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차서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는 하지만 14개의 도설을 서술한 백봉래의 의도를 밝히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백봉래의 도설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2장에서 살펴본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크게 보면 『논어』 전반을 다룬 도설과 특정 편·장을 다룬 도설 2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다. 또,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논어』는 각 편당 주된 大旨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한 맥락 속에서 구조적인 체제를 이루고 있는 저작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지점이 있다. 그러므로 그의 도설과 그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

139)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大學』, “吁! 前後聖經傳之義也. 義文之易爲經二卷, 而孔子之傳爲十卷, 堯舜之二典爲經, 而孔子之傳序以五十八篇, 文王之二南爲經, 而孔子之傳刪以三百篇, 則堯舜禹湯文武經也, 詩書易傳也. 然則傳者, 釋經之辭也. 詩書無非體易, 而夫子傳之者, 其非釋經之義耶? 至若大學之傳, 此亦釋經之辭也. 何則? 易之經二卷傳十卷, 則大學之經一章傳十章, 抑其非體易而以明詩書之體用耶?(이에 대한 번역은 최석기 (2012), 위의 책, pp.285~286 참고)

도명	해당 편/장	요지
「論語爲學之根本之圖」	『논어』 전체	務本之爲學.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	『논어』 전체, 「學而」, 「爲政」	論語之二十篇, 此實學而爲政之體 用也.
「爲政以德如北辰居所之圖」	「爲政」-1章	爲政以德, 此正帝王之大經大法也.
「禘爲王者之大」	「八佾」-10,11章	季氏之僭竊
「關雎爲中和之本」	「八佾」-20章	關雎麟趾, 無非綱紀之首, 萬化之 原, 亦無非氣化之始, 形化之端.
「夫子道一貫之圖」	「里仁」-15章	一者, 窮神知化之妙, 貫者, 千籟萬 象之串也.
「歎不復夢見周公之圖」	「述而」-5章	周公之言行, 孔子而後從之, 周公之 事業, 孔子而後述之.
「泰伯至德圖」	「泰伯」	泰伯, 其可謂至德也已矣.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	「鄉黨」	鄉黨居中, 形容夫子.
「與曾點便有堯舜氣象圖」	「先進」-25章	點之精神, 亦堯舜之精神, 點之氣象, 亦堯舜之氣象也.
「克己復禮爲仁體用之圖」	「顏淵」-1章	爲仁者, 有以全之, 則莫非天理, 不 懷人慾者, 必有以勝私慾, 而復於禮 也.
「顏淵問爲邦之圖」	「衛靈公」-10章	仲尼顏回之學, 經綸二典之道, 彌綸 二南之化, 而七十之徒, 顏回獨得其 宗.
「夫子問津不告津之圖」	「微子」-6章	量時出處, 度力進退, 而時以行止, 時以遲速者, 其非與天地萬物上下 同流者耶?
「歷敘群聖以終篇儀之圖」	「堯曰」	論語之全篇所以明心性之學, 亦以 明道理之學.

표 3-1 백봉래의 『四書通理-論語』 요지과약

위의 표는 각 도의 해당하는 편장과 그 요지를 파악한 것이다. 위의 표를 통해 14개의 도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각 도설의 연관성을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는 각 도의 말미에 도표를 그린 이유와 편차 의미에 대하여 언급해 놓았다. 이러한 언급들은 대부분 앞뒤 도(또는 해당하는 편·장)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래부터는 각 도설에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논어』 전편은 學이 아님이 없으니 「學而」와 「爲政」은 요체가 된다. 禘의 樂됨은 제왕의 大祭를 밝히고 계씨의 僭竊을 억제한 것이다. 關雎章은 기강의 처음과 王化의 끝을 밝혔으니, 一貫章에 이르러서는 ‘吾道의 一貫’을 밝혔다. 또 歎周章은 吾道가 심히 쇠퇴함을 밝힌 것이니 대개 周公의 道가 다시 행해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향당」에 夫子의 形容을 말하였으니, ‘與點’을 감탄한 것은 中和의 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克己復禮는 仁의 用을 본체로 삼는 것이니 爲邦章에 이르러서는 또한 학문과 정사의 極功이 아니겠는가?<sup>140)</sup>

위의 인용문은 백봉래가 도설의 대상으로 하는 편·장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먼저,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에서 「學而」를 ‘智’, 「爲政」을 ‘仁’으로 보아 『논어』 20편의 綱領이 된다고 밝힘으로써 앞과 실천이 『논어』의 본원이 된다고 인식하였다.<sup>141)</sup>

다음 「禘爲王者之大」는 「述而」10장<sup>142)</sup>에 해당하는 도설로 季氏의 僭竊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禘가 禮를 대표하는 일로 四勿과 연관지어 言行·動·禴祀·禮樂을 禮와 正을 바탕으로 해야함을 드러냈다.<sup>143)</sup> 또 「關雎爲中和之本」은 「술이」20장<sup>144)</sup>을 설명하는 도설로 「關雎」가 夫婦로부터 시작되는 三綱의 시작[綱紀之首]과 王化의 끝[王化之端]을 밝혔다고 설명하였다. 즉, 백봉래는 「禘爲王者之大」를 통해 禘제사에서

140)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論語全篇無非學, 則學而爲政爲體要也. 禘之爲樂, 以明帝王之大祭, 而抑季氏之僭竊也. 關雎一章, 以明綱紀之首, 王化之端, 則至如一貫, 以明吾道之一貫也. 夢周一章, 以明吾道之甚衰, 則蓋以明周道不復行也. 鄉黨既爲夫子之形容, 則與點之歎, 其不爲中和之氣衆耶? 克己復禮, 既爲體仁之用, 則至若爲邦, 抑其非學政之極功耶?”

141) 본고 pp.35~39 내용 참고.

142) 『論語』「述而」1章, “子曰, 禘自既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

143)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禮莫大於分, 分莫大於禘, 則禘者, 此實追遠顧本之義也. …… 非禮勿言, 則言行以禮也. 非禮勿動, 則動以禮也. 非禮勿視, 則禴祀以正也. 非禮勿聽, 則禮樂以正者.”

144) 『論語』「述而」1章,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공자가 안연에게 전수한 克己復禮에까지 논의를 연장하였으며, 「關雎爲中和之本」에서 吾道の 시작과 끝을 밝힘으로써 ‘吾道一以貫之’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술이」 20장의 ‘關雎之化’와 「雍也」 9장<sup>145)</sup>의 ‘不改其樂’을 연관지어 ‘一貫의 오묘함[一貫之妙]’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sup>146)</sup> 이러한 견해는 ‘一’을 ‘窮神知和之妙’로, ‘貫’을 ‘千籟萬象之串’으로 정의하여 ‘一貫’이 오묘한 속성을 가졌다고 인식한 데에서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47)</sup>

또 「歎不復夢見周公之圖」에서는 공자의 道가 심히 쇠퇴하였으며, 이로 인해 周公의 道 역시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는데, 백봉래는 이 도설에 대하여 앞에 ‘一以貫之’장과 「泰伯」 사이에 차서한 것은 ‘吾道’의 불행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sup>148)</sup> 이는 「夫子道一貫之圖」에서 ‘吾道一貫’을 설명하고, 「泰伯至德圖」에서 周公의 지극한 道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sup>149)</sup> 그 사이에 「歎不復夢見周公之圖」를 차서함으로써 공자의 道에 불행을 강조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는 「부자도일관지도」 전후의 도설들이 吾道一貫의 妙를 드러냄으로써 吾道の ‘一本萬殊’ 특성을 박힘으로써 ‘吾道一以貫之’를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鄉黨」에서 공자의 언행을 형용하여 그의 道德이 言行에 드러난다는 것을 드러냈고,<sup>150)</sup> 「與曾點便有堯舜氣象圖」에서 「先進」 25장<sup>151)</sup>을 해석하면서 曾點의 氣

145) 『論語』 「雍也」 9章,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146)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編於關雎之次, 不改其樂之前者, 何意也? 曰關雎之化, 簞瓢之樂, 蓋莫非一貫之妙也.”

147)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一者, 窮神知化之妙, 貫者, 千籟萬象之串也. …… 大易所謂 一本爲萬殊, 萬殊爲一本也. 以此推之, 則眞有一貫之妙.”

14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斯文將墜, 此所以編於一貫之後, 泰伯之前者, 蓋以明吾道之不幸也.”

149)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此所以編於夢周之次, 而列於鄉黨之前者, 蓋以明周之至德也. 禮樂德政, 無非周之文, 則深有味於編次之本義也.”

150)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聖門高弟之察於動靜言之餘, 省於德政禮樂之中者, 無非夫子之粹面盎背, 亦無非夫子之心廣體胖也.”

像이 堯舜의 氣像과 일치하며<sup>152)</sup> 공자가 추구하는 ‘老者安之’와 ‘小子懷之’가 증점의 ‘冠者五六人’과 ‘童子七八人’에 대응하기 때문에 공자가 증점을 허여한 것을 밝혔다.<sup>153)</sup> 또 「克己復禮爲仁體用之圖」와 「顏淵問爲邦之圖」을 통해 공자의 학문이 안연에게 전수된 것을 밝혔다. 「與曾點便有堯舜氣象圖」-「克己復禮爲仁體用之圖」-「顏淵問爲邦之圖」의 차서는 곧 ‘一貫의道’를 밝힌 것이라고 드러내었다. 이 3개의 도설은 모두 공자가 인정한 제자에 관한 章을 대상으로 하는 도로써 공자 道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 도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一本인 공자의 道가 증점과 안연에게 투영되어 萬殊가 된다는 것을 밝힌 차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夫子問津不告津之圖」에서는 『논어』에 나타나는 은자와 성현의 출처를 정리하여 20편의 여운을 밝혔으며, 「歷敘群聖以終篇儀之圖」에서는 堯舜으로부터 시작된 공자의 道統을 밝힘으로써 공자의 道가 萬殊에서 다시 一本으로 귀결되는 것을 드러냈다.<sup>154)</sup>

이상에 논의한 내용은 백봉래가 도설의 대상으로 하는 장과 그 차서의 의미는 ‘吾道一以貫之’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큰 갈래로 정리하자면, 첫째, 吾道一貫의 妙를 드러냄으로써 吾道의 ‘一本萬殊’ 특성을 밝혔고 둘째, 공자의 道가 제자들에게 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됨을 밝혔다. 셋째, 공자로부터 증점·안연 등 제자에게 전해진 공자 道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道傳의 과정을 나열함으로써 다시 萬殊에서 一本으로 귀결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백봉래가 『논어』의 대한 확장으로 『맹자』와의 관련성에 주목한 ‘論孟本末論’에 대하

151) 『論語』「先進」25章, “點爾, 何如? 鼓瑟希, 鏗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莫春者, 春服, 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嘆曰, 吾與點也.”

15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點之精神, 亦堯舜之精神, 點之氣象, 亦堯舜之氣象也. 以點之狂言不掩行, 雖未侔於堯舜之德業, 便自有堯舜之氣像, 此夫子所以與點也.”

153)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冠者五六人, 吾夫子老者安之之意, 童子七八人, 吾夫子少者懷之之志也.”

154)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此所以次於爲邦之後者, 蓋以明二十篇之餘韻也. 然後以堯曰歷敘羣聖之統, 而爲萬殊之歸一本也.”

여 살펴보도록 하자.

### 3. 논맹본말론

조선전기 명나라로부터 『四書五經大全』이 유입된 뒤로부터 四書五經에 관한 학문이 형성되었고, 그중 四書가 학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의 학자들은 모든 학문의 근본을 四書を 비롯한 경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에 조선의 학자들은 각 경전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많은 경학가들 가운데 한 명을 꼽자면 봉춘 최상룡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최상룡은 四書가 四經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를 내세워 四經四書論을 주장하였다.<sup>155)</sup> 또 四書의 공부 순서를 주자학설과 달리 『중용』-『대학』-『논어』-『맹자』 순으로 읽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용』이 性命의 깊고 은미한 이치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의리의 본원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읽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초학자의 入德의 문이 되는 『대학』을 읽고, 『논어』를 읽어 操存涵養의 根本을 탐구하고, 그 다음 『맹자』를 읽어 體認擴充의 發越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56)</sup>

백봉래 역시 四書三經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三經과 四書を 體用관계로 보았으며, 三經 안에서는 『주역』이 體가 되고 『시경』과 『서경』이 用이 된다고 언급하였다.<sup>157)</sup> 또 四書에 관해서는 기존의 주자의 학설을 따르되 『대학』과 『중용』, 『논어』와 『맹자』가 각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아래 인용문에 나타난다.

---

155) 본고의 주석 19) 참고.

156) 최석기(2007), 위의 논문, p.635.

157)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三經爲體, 四書爲用, 則通義者三經, 通理者四書.”



二典은 『대학』의 조종이 되고, 순임금이 ‘하늘의 명을 삼갈진댄[勅天之命]’이라고 노래한 것이 『시경』의 시초가 되니, 선유들이 이른바 『대학』이 규모가 된다고 한 것이 분명하고, 『중용』이 미묘한 것이 된다고 한 것도 분명하다. 『논어』는 一本이 되고, 『맹자』는 萬殊가 되니 『대학』이 ‘자기명덕을 밝히는 데 달려있다.[在明明德]’라는 것이 그 규모가 아니겠으며, 『논어』의 ‘근본에 힘쓴다[務本]’라는 것이 그 근본이 아니겠는가? 『맹자』의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는다[存天理遏人慾]’는 것은 드러난 것이 되고, 『중용』의 ‘天命’은 미묘한 학문이 된다. …… 『중용』·『대학』은 表裏가 되고, 『논어』·『맹자』는 本末이 된다. 지극한 규모는 『대학』이고, 지극히 오묘한 것은 『중용』이다. 공자는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과 같고, 맹자는 꺾어다가 꽃은 꽃과 같다. 그러므로 『중용』·『대학』이 표리가 되고, 『논어』·『맹자』가 본말이 되는 것은 변설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맹백한 듯하다.<sup>158)</sup>

먼저 그는 『대학』을 規模, 『논어』를 一本으로, 『맹자』를 萬殊로, 『중용』을 微妙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먼저 『대학』을 읽어 그 규모를 정하고, 다음으로 『논어』를 읽어 그 근본을 세우고, 다음으로 『맹자』를 읽어서 그 發越을 살피고, 다음으로 『중용』을 읽어서 옛사람의 미묘한 점을 구해야 한다.”<sup>159)</sup>라고 한 주자의 견해를 따른 듯하다. 하지만 그는 四書 안에서 『중용』과 『대학』이 表裏가 되고, 『논어』와 『맹자』가 本末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논어』와 『맹자』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아! 『논어』와 『맹자』가 서로 本末이 되고 또 서로 體用이 된다. 그러니 本은 體이고 末은 用이다. 體가 本이 되고 用이 末이 되니 『논어』가 근본이 되는 것은 體

15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二典, 爲大學之祖宗, 勅天爲三百篇之權輿, 則先儒所謂大學之爲規模明矣. 中庸之爲微妙亦明矣. 論語之爲一本, 孟子之爲萬殊, 則大學之在明德, 其非規模乎? 論語之務本, 其非根本乎? 孟子之存遏, 此爲發越, 中庸之天命, 此爲微妙之學也. …… 若然則庸學爲表裏, 語孟爲本末也. 至規者學, 至妙者庸, 而孔子爲生生之花, 孟子爲剪綵之花, 則庸學之表裡, 語孟之本末. 似或不待辨說而明矣.”

159) 『朱子語類』 卷14, 「大學一」, “先讀大學, 以定其規模, 次讀論語, 以立其根本, 次讀孟子, 以觀其發越, 次讀中庸, 以求古人之微妙處.”

이고 『맹자』가 발원이 되는 것은 用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堯舜의 道는 공자가 아니면 근본이 확립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공자의 학문은 맹자가 아니었다면 용이 넓어지지 않았을 것이다.<sup>160)</sup>

주지하다시피 그는 『논어』와 『맹자』가 本末이 되고 體用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공자가 堯舜의 道를 이어받음으로써 근본이 확립되었다고 밝힌다. 또 공자의 학문은 맹자에 의해서 널리 적용된 것이라 언급하면서 『논어』와 『맹자』가 본말이 되는 근거를 道統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공자가 本을 확립하고 맹자가 넓은 道統에 대한 백봉래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堯舜의 학문은 理이며, 禹湯의 학문은 性이며, 文武의 학문은 心이다. 그러니 道와 命은 늘 한 마음의 주인이 되어 天理를 보존하고 乾性을 본체로 한다. 堯舜禹湯文武의 마음은 또한 天命을 따르고 天道를 행하지 않음이 없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전한 것은 心學이고 性으로써 따른 것은 性學이다. 理를 따르고 天을 보존하는 것은 理學의 근원이고, 命을 보존하고 道를 즐기는 것은 道學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 禮가 비록 損益이 있지만 학문이 아님이 없으며, 道가 비록 오르내림이 있지만 역시 학문이 아님이 없다. …… 『논어』 전편은 心性の 학문을 밝힌 것이며 또 道理의 학문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 이른바 ‘堯가 이것을 舜에게 전하였고 舜이 이것을 禹에게 전하였고 禹가 이것을 湯에게 전하였고 湯이 이것을 文武·周公·孔子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이니 그런 후에 『논어』와 『맹자』가 서로 體用이 되는 것을 알고 또 本末이 서로 관통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sup>161)</sup>

160)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孟子』, “吁. 語孟自相本末, 亦相體用, 則本者體也, 末者用也. 體爲本, 用爲末, 則語之爲根本, 體也. 孟之爲發越, 用也. 何則? 堯舜之道非孔子, 則本不立矣, 孔子之學非孟子, 則用不廣矣.”

161)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堯舜之學理也, 禹湯之學性也, 文武之學心也. 道與命, 常爲一心之主, 而存天之理體乾之性, 則堯舜禹湯文武之爲道, 無非存天之理, 體乾之性也. 堯舜禹湯文武之爲心, 亦無非順天之命, 行天之道也. 以心相傳者, 心學也. 以性相率者, 性學也. 順理存天, 爲理學之原, 存命樂道, 爲道學之本, 則禮雖損益, 莫非學也, 道雖升降, 亦莫非學. …… 全篇所以明心性之學, 亦以明道理之學, 則此所謂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周公孔子也. 然後知語孟之自相體用, 而本末之亦相貫通也.”

백봉래는 『논어』 전편은 요순의 理學과 우당의 性學, 문무의 心學 그리고 道學을 모두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공자의 학문은 요순으로 비롯되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논어』와 『맹자』가 本末이 되고 體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논어』와 『맹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3가지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맹자』의 四端은 『논어』의 四本の 發越이라는 것이다. 이는 『논어』의 仁義禮智가 『맹자』에서 언급된 惻隱·羞惡·辭讓·是非之心の 근본이 되며, 『맹자』는 仁義禮智의 발월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sup>162)</sup> 둘째, 『맹자』의 四用은 모두 『논어』 四德의 발월이라는 것이다. 그는 『논어』의 四德은 ‘本이 확립되자 性이 온전해 짐[本立性全]’·‘本이 확립되자 道가 생겨난다[本立道生]’·‘本이 확립되자 德이 이루어짐[本立德成]’·‘本이 서자 命이 보존됨[本立存命]’의 4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4가지의 發越이 『맹자』에 각각 ‘선한 마음이 감발됨[感發善心]’·‘治亂을 밝힘[明治亂]’·‘왕도를 행하고 방백을 내침[王行伯黜]’·‘안일한 뜻을 징계함[懲創逸志]’과 같은 用들로 발현된다는 것이다.<sup>163)</sup> 셋째는 『맹자』에서는 三綱과 五倫을 밝혔는데, 이 역시 모두 『논어』에서 비롯된 이치의 발월이라는 것이다.<sup>164)</sup>

이상의 논의한 바와 같이 백봉래는 『논어』를 근본으로 『맹자』를 근본의 발월로 보는 것에 대하여 첫째, 공자의 道統을 맹자가 전하였다는 관점에서 本末을 말하였으며, 둘째, 『논어』에 四本, 四德으로 나타나는 원리들이 『맹자』에 이르러 四端과 四用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는 백봉래가 『논어』를 一本, 『맹자』를 萬

16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孟子』, “語以仁爲惻隱之本, 孟以惻隱爲仁之端者, 彼體而此用也. 語以禮爲辭讓之本, 孟以辭讓爲禮之端者, 彼體而此用也. 語以義爲羞惡之本, 孟以羞惡爲義之端者, 彼體而此用也. 語以知爲是非之本, 孟以是非爲知之端者, 彼體而此用也. 然則孟子之四端, 其非論語四本之發越耶?”

163)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孟子』, “彼以本立性全, 此以感發善心者, 以體用言也. 彼以本立德成, 此以明治亂者, 以體用言也. 彼以本立道生, 此以行王黜伯者, 以體用言也. 彼以本立命存, 此以懲創逸志者, 亦以體用言也. 然則孟子之四用, 抑其非論語四德之發越耶?”

164)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孟子』, “孟子之明三綱, 無非發越也. 孟子之晰五倫, 亦無非發越也.”

殊 즉, 體와 用으로 인식한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저술에서는 백봉래의 『논어』 해석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백봉래가 『논어』의 의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다양한 경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以經證經’·‘以經通經’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서와 삼경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절에서는 『論語通理』에 수록된 14개의 도가 어떠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에 관해 다루었다. 백봉래는 각 도설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14개의 도설이 ‘吾道一以貫之’라는 키워드에 수렴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논어』가 ‘吾道一以貫之’라는 일관된 논리로 관철된다는 백봉래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 3절에서 백봉래는 『논어』와 『맹자』가 根源과 發越이라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공자의 道統을 맹자가 이어받았다는 점, 『논어』의 핵심내용인 四德과 四本이 『맹자』에서 四端과 四用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로 나타난다는 것을 들어 『論語』는 一本 『孟子』는 萬殊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논의는 백봉래의 『논어』 해석이 주자의 학설을 근간으로 하되 깊은 사유를 통해 『논어』와 다른 경서에 출처를 둔 개념 간의 관련성, 자신의 저술한 도설 간의 관련성, 맹자와 같은 다른 경전과의 관련성을 찾아 『논어』 안팎에 걸쳐 논의를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제5장 결론

본고는 『논어』를 도설로 해석한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도설은 난해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방법으로, 조선시대 경학연구 방법 가운데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도설은 각 경전과 학자에 따라 그 형태와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도설을 채택하여 자신의 경학론을 전개해 나간 백봉래의 『四書通理-論語』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논어』 도설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첫째, 『논어』 전체를 하나의 도표로 그린 전도 유형, 둘째, 『논어』의 논리구조를 파악한 분절도 유형, 셋째, 특정 편·장의 의미를 도식화한 유형, 넷째, 『논어』의 핵심주제어의 요지를 파악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 『논어』의 특징으로 3가지를 파악했다. 첫째, 『논어』 각 편·장의 요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주자의 견해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둘째, 선유의 도설을 참고하여 그리되 자신의 견해로 보충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셋째, 『대학』과 『중용』 도설과 달리 유형마다 그 표본의 수가 적어 선불리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고에서 주되게 다루고자 하는 백봉래의 『논어』 도설을 분석하여 앞서 살펴본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4가지 유형을 참고하여 분류하고 백봉래 도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백봉래 논어도설의 특징으로는 첫째, 14개의 도는 그 내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조선 『논어』 도설의 유형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논어』를 도표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서의 개념을 인용하였으며, 『논어』 안에서도 관련된 개념을 배치함으로써 논의를 확장한 점이다. 셋째, 백봉래의 『논어』 도설은 전체를 다루는 도설에서부터 편·장을 거쳐, 핵심어를

다루는 도설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논어』를 탐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백봉래의 『논어』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백봉래는 『논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以經證經·以經通經의 방식을 취하여 四書와 三經의 개념을 두루 다루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논어』 전반을 관통하는 원리로써 ‘吾道一以貫之’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어』 14圖를 그렸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논어』와 『맹자』를 本末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그의 관점에 대해 살펴보므로써 그가 『논어』를 단일 경서로서의 의미와 다른 경서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는 조선 경학의 특징적인 연구방법인 도설이 『논어』에 적용된 사례에 착안하여, 조선의 『논어』도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백봉래의 『논어』도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경학론은 형태 면으로 보나 내용 면으로 보나 눈에 띄는 점들이 나타난다. 첫째, 도설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저술을 도설 형태로 서술하면서 자신의 경학론을 전달하기 쉽도록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각 도표마다 부가적인 설명을 붙여 그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둘째, 서술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경전의 경문을 인용하는 以經證經·以經通經의 방식을 통해 논어에 관한 면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셋째, 四書三經을 유기적으로 연관짓는 경학관을 전제로, 『논어』와 『맹자』를 本末과 體用관계로 보아 주자가 『논어』-根本 『맹자』-發越이라는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학설을 폈다는 것이다.

그가 살아간 18세기는 『논어』연구에 있어 양명학과, 퇴계학과, 우암학과, 실학과 등에서 여러 학파에서 다채로운 양상이 나타났다.<sup>165)</sup> 이와 달리 백봉래는 재야의 학자로서 학계에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였을뿐더러 특별한 사승관계에 속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학설은 주자학은 근간으로 하였지만, 당시 어느 학파와도 구별되는 학설을 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5) 이영호(2019), 『동아시아의 논어학』, 『대동문화연구총서』 Vol.29,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261.

이상의 내용에서 한국 도설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논어』 도설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백봉래가 도설이라는 형식으로 『논어』를 해석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준으로 채택한 전도·분절·장별·핵심어별 유형의 분류는 『중용』도설 연구를 위한 기준에서 참고한 것이므로 『논어』 도설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연구대상으로 한 장현광, 김황, 박세채, 백봉래 등의 『논어』 도설 이외에 龍崖 申應泰(1643-1728) 등 확인하지 못한 『논어』관련 도설이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때문에 본고가 조선시대 『논어』 도설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어』 도설을 총망라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한 『논어』 도설 이외 새로운 『논어』 도설을 밝혀내고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또 본고의 전도·분절·편장별·핵심어별 유형 분류를 넘어서서 『논어』 도설을 저술한 목적과 도설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러한 내용에 관한 분석을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 참 고 문 헌

## 1. 原典

『論語』

『孟子』

『大學章句』

『中庸章句』

『周易』

『周易正義』

『論語集注』

『朱子語類』

『性理大全書』

金 梲, 『重齋先生文集』, 重齋先生文集刊行會, 1998.

金 傑, 『敬窩集』, 『韓國文集叢刊』 Vol.100,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2.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 『韓國文集叢刊』 Vol. 141,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5.

白鳳來, 『四書通理』, 『韓國經學資料集成』 Vol.2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0.

沈就濟, 『謙窩集』, 『韓國經學資料集成』 Vol.30,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2.

張顯光, 『易學圖說』, 서울: 韓美文化社, 1998.

曹 植, 『學記類編』, 경상대학교 문헌각 소장본.

崔象龍, 『鳳村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2. 국내자료

### <단행본>

서경요(2003), 『한국유교지성론』, 유교문화연구총서 Vol.2,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영호(2019), 『동아시아의 논어학』, 대동문화연구총서 Vol.29,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정복심著; 전병욱譯(2018), 『四書章圖: 櫟栝總要』 Vol.2, 세창출판사.

최석기(1998), 『한국경학가사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최석기·강현진(2012),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최석기(2013), 『조선시대 중용도설』, 보고서.

한국주역대전편찬실(2017), 『한국주역대전』 Vol.5~6, 고양: 학고방.

김동인의 2명(2009), 『(세주완역) 論語集註大全: 동양철학의 향연』Vol.1, 파주: 한울.

\_\_\_\_\_ (2010), 『(세주완역) 論語集註大全: 동양철학의 향연』Vol.2, 파주: 한울.

### <연구논문>

김유곤(2007), 「한국 ‘中庸圖說’의 주제와 특성」, 『유교사상문화연구』Vol. 29, 한국유교학회.

김채리(2016), 「碩齋 尹行恁의『論語隨筆』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창호(2008), 「九龍齋 白鳳來의『四書通理』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7), 「구룡재 백봉래의 經學 一考 - 『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 『유학연구』 Vol.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박학래(2009), 「『海東文獻總錄』과 敬窩 金佺」, 『민족문화연구』 Vol.5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서경요(2001), 「『天命圖說』의 성리학적 고찰」, 『조선조 성리철학의 구조적 탐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서근식(2009), 「『논어』의 '仁'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동양고전연구』 Vol.36, 동양고전학회.
- 송갑준(2008), 「한국논어연구사시론 — 16~17세기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vol.43, 대동철학회.
- 안현주(2002),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論語』의 板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Vol.24, 한국서지학회.
- 윤기륜(2015), 「崔象龍의 『論語辨疑』 譯註」,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찬(2005), 「白鳳來 詩經論의 編輯批評的 性格 研究」, 『어문연구』 Vol.48, 어문연구학회.
- \_\_\_\_\_ (2008), 「백봉래의 書經論 연구 - 編輯批評的 性格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Vol.56, 어문학회.
- 이승환(2012), 「南冥『學記圖』自圖說批正」. 『철학연구』Vol.46,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 이영호(1999), 「17世紀 朝鮮 學者들의 『大學』解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인(2014), 「鳳村 崔象龍의 『孟子』 해석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재동(2008), 「宋時烈과 朴世采의 退溪說 批判 -『退溪四書質疑疑義』 “論語”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Vol.42, 한국한문학회.
- 정지연(2016),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바라본 『論語』의 信 觀念」,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석(2016), 「九龍齋 白鳳來의 《書經》 「虞書」 六圖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석기(1999), 「南冥思想의 本質과 特色」,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2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_\_\_\_\_ (2005), 「『한국경학자료집성』의 특징과 그 연구방향」, 『한국경학자료집성』소재 『대학』해석의 특징과 그 연구 방향」, 『대동문화연구』 Vol.49, 대동문화연구.
- \_\_\_\_\_ (2007), 「鳳村 崔象龍의 學問性向과 經學論」, 『한문학보』 Vol.17, 우리한문학회.
- \_\_\_\_\_ (2015), 「遜庵 申晟圭의 『論語講義』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_\_\_\_\_ (2018), 「조선시대 『中庸』 해석의 양상과 특징 -圖說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Vol.60, 경남문화연구원.

#### <전자자료>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

한국경학자료시스템(<http://koco.skku.edu/>)

## 中文摘要

# 九龍齋 白鳳來의 『論語』圖說 研究

李 芽 迎  
東亞細亞學科  
成均館大學校

本文研究九龍齋白鳳來(1717-1799)的『論語』圖說。白鳳來作為18世紀的在野經學家,不拘泥于師承關係與學脈,試以獨到的觀點闡述聖賢留下的微言大義。

朝鮮時代的經學家們採用圖解經典的形式,洞悉各部經典的整體要旨和邏輯結構,將各篇·章的內容進行圖式化,對細節內容進行縝密分析,將關鍵主題語所涉及的概念排列在一個圖表中以把握概念之間的關聯性。

白鳳來的『論語通理』無論在形式上還是內容上都具有重要特徵。形式上的最大特點是試圖通過圖說的敘述方法來掌握語錄體形式的『論語』一貫的邏輯和體系。他通過『論語』圖解把握了整體要旨和邏輯結構,並闡釋了各篇·章以及核心主題的要旨,對論語進行了多方面分析。

內容上的特點在於以朱子學說為主幹引導更具體的討論。在解釋論語時,通過以經證經·以經通經的方式關聯許多經典語句來增加對『論語』解釋的深度,並將以“吾道一以貫之”貫徹的『論語』整體用14個論語圖說加以揭示。另外,還提出了將『論語』和『孟子』有機地聯繫起來形成本末關係的觀點,擴大了有關『論語』的討論。

通過圖說來解釋經典的方式在東亞並不常見,這是朝鮮時代經學的主要特徵。儘管『論

語』是不規律的語錄體形式,朝鮮經學家們仍然對『論語』進行了圖解。特別是白鳳來著述的包括朝鮮時代『論語』圖說類型在內的14個圖說。他的著述作為獨學的產物,事實上並未得到當時時代當代學者的客觀評價。但是,他通過圖解經典來最終用綜合性和宏觀的觀點看待儒家經典的嘗試可謂意義重大。

**關鍵詞：**九龍齋 白鳳來, 論語圖, 『論語通理』, 論語圖說, 體用論